

| SRI-기본-2016-13 |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ctivities for Community Culture in Suwon

최 지 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임재춘 (커뮤니티 스튜디오 104 대표)
 한문희 (머리에꽃 네트워크 대표)

© 2016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 쇄 2016년 10월 25일
발 행 2016년 10월 31일
ISBN 979-11-87778-11-0 (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16.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수원시에서는 마을르네상스 등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마을문화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현황과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적 지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원시의 마을문화활동과 그 활동의 주체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이 어떠한 주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에서의 예술에 대한 개념적·역사적 접근을 통해 마을문화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공동체 만들기이다. 공동체의 관계형성과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문화예술은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예술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과 ‘문화’의 결합이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함께 마을문화 또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문화활동의 핵심인 것이다.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 중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인터뷰, 마을문화활동 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문화활동의 현장을 확인하고 활동실태와 인식에 대한 분석, 지원사업 전반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문화활동을 일상화하고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성을 발현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벽화, 공연, 마을신문제작, 취미강좌개설 등 활동 양식은 다양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이 마을활동이나 공동체 형성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당위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혹은 의미가 공동체 활동과 결합되어 있기 보다는 수단이나 도구로서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원에 많은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마을문화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수원 전역에서 마을문화활동이 다양한 활동양식으로 활성화되고 그 활동주체들이 발굴되었지만 아직은 보편적인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자발성 미약이라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을문화활동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지 않고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기 보다는 수단으로서만 이용되고 있다.

주제어: 마을문화활동, 마을만들기, 공동체 예술, 자발성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마을만들기와 마을문화활동	9
1. 마을만들기	9
2. 마을문화활동	10
제2절 마을문화와 예술	13
1. 공공미술에서 공동체 예술로	13
2.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지역활성화	16
제3절 수원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19
1. 마을르네상스 사업	19
2.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23
제3장 마을문화활동 사례와 현황	25
제1절 마을문화활동의 현장 사례	27
1. 조사설계	27
2. 현장 사례	28
3. 시사점	66
제2절 마을문화활동 지원 기관	69
1. 인터뷰 개요	69
2.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	69
3. 시사점	78

제3절 마을문화활동 실태와 인식	80
1. 조사설계	80
2. 분석 결과	81
3. 시사점	103
제4장 결 론	105
제1절 몇 가지 이슈들 - 결론을 대신하여	107
1. 제도권 안으로 포섭된 마을문화활동	107
2. 자발성과 자립, 지속가능성의 문제	107
3. 활동에 대한 보상과 자발성	108
4. 예술적 차원의 이슈	109
제2절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	112
참고문헌	115
부 록	
1. 설문지	119

| 표 차례 |

〈표 2-1〉 마을만들기 개념	10
〈표 2-2〉 마을문화활동과 지역단위 자기개발활동	11
〈표 2-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현황	22
〈표 2-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현황	24
〈표 3-1〉 조사대상	28
〈표 3-2〉 제5회 군들 청룡문화제 프로그램	41
〈표 3-3〉 마을문화활동 지원기관 인터뷰 현황	69
〈표 3-4〉 설문 구성	80
〈표 3-5〉 단체 내 직위	81
〈표 3-6〉 주민참여정도 평가	87
〈표 3-7〉 내가 하는 일의 성격	92
〈표 3-8〉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93
〈표 3-9〉 수원시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	94
〈표 3-10〉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정책 방향	95
〈표 3-11〉 수원시 지원사업의 기여 정도	96
〈표 3-12〉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변화정도	98
〈표 3-13〉 만족도	100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의 흐름	6
〈그림 2-1〉 마을문화의 특성과 영역	12
〈그림 2-2〉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의 유형별 프로세스와 한계	17
〈그림 2-3〉 마을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방향	19
〈그림 2-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의 단계별 추진전략	20
〈그림 2-5〉 마을르네상스 참여 그룹 관계도	20
〈그림 2-6〉 공모사업 절차	22
〈그림 3-1〉 칠보산 마을신문 카페	29
〈그림 3-2〉 칠보산 생활놀이 공동체	29
〈그림 3-3〉 골목잡지 사이다와 주민활동들	31
〈그림 3-4〉 연주회 포스터	33
〈그림 3-5〉 지역주민 대상 연주회 활동	34
〈그림 3-6〉 다담 공간 내·외부 전경	36
〈그림 3-7〉 금빛합창단 연주활동	38
〈그림 3-8〉 행사 포스터	39
〈그림 3-9〉 청룡문화제 현장	40
〈그림 3-10〉 꽃뫼버들마을 LG아파트 화단	43
〈그림 3-11〉 청구아파트 좋은 마을학교 입구 및 내부	46
〈그림 3-12〉 지구별상상 어르신·청소년 프로그램	48
〈그림 3-13〉 가드닝밸리 풍경	51
〈그림 3-14〉 생태교통마을 조형물 및 마켓 행사	54
〈그림 3-15〉 다울공동체 공간의 변화 사진과 내부 모습	56
〈그림 3-16〉 경기인형극진흥회 인생나눔 인형극단	61
〈그림 3-17〉 매탄4동주마을만들기협의회 활동	65
〈그림 3-18〉 활동 동기	82

<그림 3-19> 설립연도	83
<그림 3-20> 활동지역	83
<그림 3-21> 단체 성격	84
<그림 3-22> 설립계기	85
<그림 3-23> 문화활동 고려점	86
<그림 3-24> 문화활동 수행시 애로사항	87
<그림 3-25> 주민 참여 양상	88
<그림 3-26> 주민참여정도 평가	88
<그림 3-27>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89
<그림 3-28> 주민참여 증진방안	90
<그림 3-29> 문화활동 지속에 필요한 요인	91
<그림 3-30> 문화활동의 목적	91
<그림 3-31> 내가 하는 일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92
<그림 3-32> 내가 하는 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이다	92
<그림 3-33>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93
<그림 3-3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93
<그림 3-35> 수원시의 현재 상황은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94
<그림 3-36> 수원시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94
<그림 3-37> 마을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95
<그림 3-38> 마을문화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들이 함께 해야 한다	95
<그림 3-39> 마을문화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96
<그림 3-40>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96

〈그림 3-41〉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의 예술관련 지원사업이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96
〈그림 3-42〉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여한 문화활동에 만족해하고 있다	97
〈그림 3-43〉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화활동과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해하고 있다	97
〈그림 3-44〉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97
〈그림 3-45〉 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만족한다	99
〈그림 3-46〉 나는 마을만들기나 마을문화활동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한다	99
〈그림 3-47〉 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만족한다	99
〈그림 3-48〉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99
〈그림 3-49〉 마을의 범위	100
〈그림 3-50〉 마을문화활동의 필요성	101
〈그림 3-51〉 수원시의 역할	102
〈그림 3-52〉 정부지원의 목표	10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의 패러다임 변화로 예술성과 시민성을 겸비한 생활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국가 문화정책에서도 생활문화예술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전문예술가나 특정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이 즐기고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이제 진부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최근의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강조는 이제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한편 시민들의 삶과 일상이 문화예술의 토대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예술성과 시민성 외에 생활문화예술의 또 다른 요소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지역성이다. 생활문화예술의 토대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라고 할 때 지역은 일상이 이루어지는 물적 토대이자 공간적 기반이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근거로 하여 펼쳐지게 된다. 한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과 삶이 만나 부딪히면서 지역은 물리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 즉 지역은 단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현대도시의 가능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한 공동체회복 실험들이 각광받으며 문화예술의 한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양혜완김혜인, 2012) 문화예술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 어느 것보다 유용한 매개이다. 문화는 지역 내 퍼져있는 고유한 정서와 감정 즉 정체성 형성을 통해 지역을 공동체로 묶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술은 지역사람들을 결합시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마을만들기의 주요한 수단이자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문화예술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차없는 거리 등 각종 지역사업에서 문화프로그램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주민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의 주된 소재로서 예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은 모두 문화프로그램이라 하여도 틀리지 않으며,

마을축제나 지역신문과 같은 문화활동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인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수의 수원시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면서 활발한 마을문화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수원에서 지역을 근거로 한 문화활동이 어떠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마을문화활동의 현실과 쟁점, 활동 주체들의 의식 및 태도, 마을문화 활동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이다. 현재 마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단체들의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2) 공간적 범위

수원시 내에서 동네, 아파트 단지, 행정동 등 소지역 단위로 마을문화활동이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3)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일종의 사례 연구로 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콘텐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활동을 탐구한다.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단체 및 인력 현황, 활동 내용, 주민참여 정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및 정책 방향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마을만들기와 마을문화활동 개념과 현황,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을 조사하였다.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르네상스 센터와 수원문화재단의 목록 자료, 발간자료,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으로 통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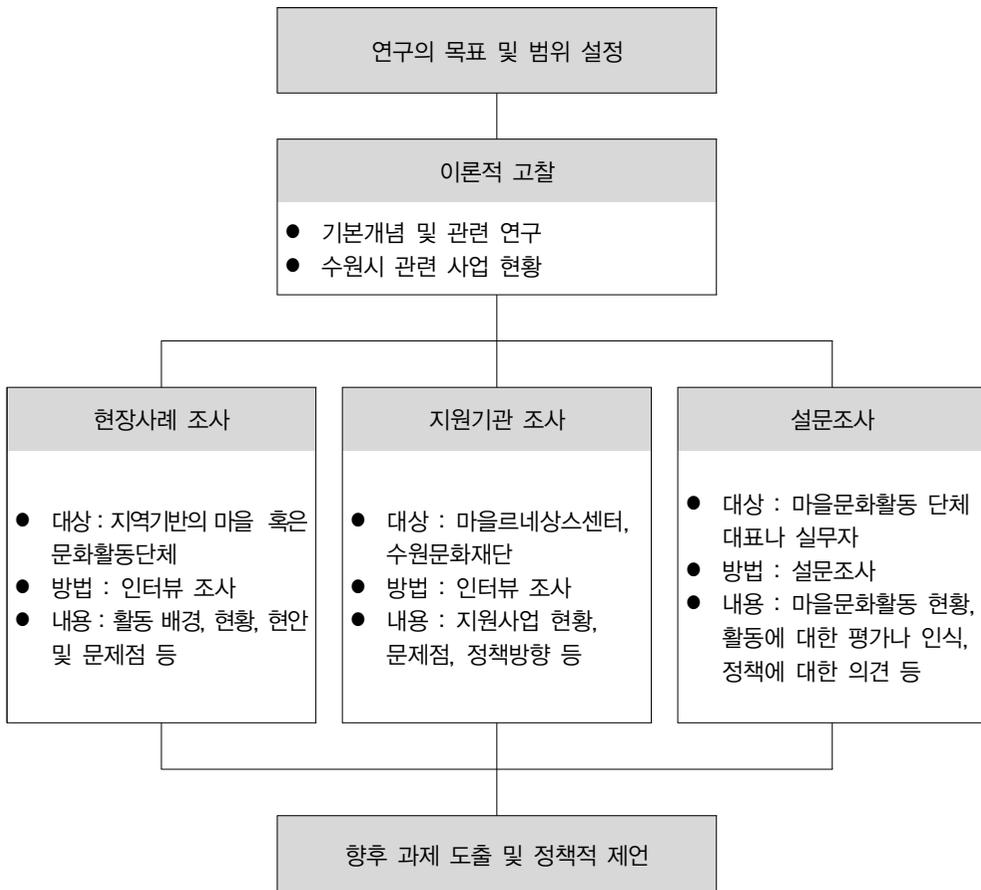
2) 인터뷰 조사

마을문화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대표자나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수원시의 지원사업

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기관인 마을르네상스 센터와 수원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설문조사

마을문화활동 현황, 평가와 인식, 정책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을문화활동 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단체와 수원문화재단의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마을르네상스 센터와 수원문화재단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마을만들기와 마을문화활동

제2절 마을문화와 예술

제3절 수원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마을만들기와 마을문화활동

1.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동체 개념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공동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조성되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의 유대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표현’(George A. Hillery, 1955: 9)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에게도 적용되어 마을공동체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이 핵심이라고 힐러리는 지적하고 있다. 즉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지리적 구성체가 아니라 장소적 정체성 위에 형성된 사회적·문화적·정서적 공유체라는 것이다. 가까이 산다는 것만으로 공동체라 할 수 없으며 그 안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가 변화하면서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과거의 지역사회의 특징인 일차적인 관계에 기반한 대면적 커뮤니케이션과 친밀하고 정서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뒤집어보면 현대의 공동체는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과 사회적 관계 즉 도시적 삶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을만들기에 대해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이지만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간 안의 주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마을은 달라진다. 만들기는 건축이나 토목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비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다. 마을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의식, 주민들간의 상호관계 등 비물질적인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만들기에는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민모임을 조직하는 일 등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마을만들기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인 것이다.

〈표 2-1〉 마을만들기 개념

연구자	정의
이창호(2012)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김은희(2012)	일상 생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주민참여 활동
남원석 외(2012)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활동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2015)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함께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자발적인 운동

마을만들기란 용어는 1990년대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마을만들기 개념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에도 지역기반의 여러 활동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마을만들기의 원형(prototype)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정책이나 행정의 협조 없이 민간단체들이 주민들과 협력하였던 도시빈민운동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쳤던 자생적인 마을만들기 활동¹⁾ 등이 포함된다.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시민운동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동²⁾이 활발해졌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마을만들기가 소개되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김은희, 2012)

2. 마을문화활동

라도삼(2012: 14)은 마을문화를 ‘마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고유하고 정체화된 행동과 행위의 체계’이며 ‘이 체계는 마을을 정체화하며, 기호화’하여 ‘마을을 비로소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마을문화는 ‘마을’이 구성되고 나서 오랜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사회에서는 예전의 전통적인 마을이 거의 붕괴되고 이제야 다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
- 1) 자생적 마을만들기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꽃길골목과 서울 은평구 한양주택을 들고 있다.
 - 2) 시민단체에 의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사례로는 1993년 도시연대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1996년 도시연대의 인사동, 1994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1996년 부평 상인들에 의한 부평 문화의 거리 만들기, 1996년 부산 희망세상의 지역공동체 반송마을만들기, 1997년 대수 YMCA의 삼덕동 골목가꾸기 등을 들고 있다.

다. 즉 현재의 상황은 현존하는 마을문화가 있다기 보다 새롭게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마을문화활동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이면서 궁극적으로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간 활동의 시간적 축적으로 형성된다. 마을문화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이 활동이 문화적 특성을 가진 활동일 때 마을문화는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특성이란 흔히 넓은 의미의 문화로 정의하는 행동 양식이나 패턴이 아닌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문화는 마을에서 보이는 모든 형태의 생활방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미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게 된다. 예술과 같은 미학적 영역의 활동으로 주민들간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 한다면 이는 마을의 미학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마을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마을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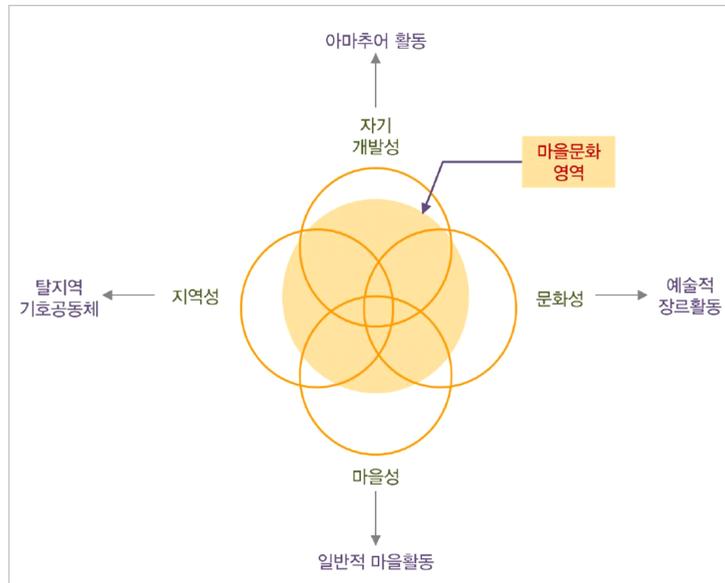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에 대해 구별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도삼, 2012: 15~16) 하나는 지역을 매개로 한 자기개발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간의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 문화활동이다. 이 둘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문화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내용이나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을 매개로 하는 자기개발 활동은 마을을 단위로 한 ‘아마추어 예술활동’이라면 주민 간의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 문화활동은 문화를 ‘매개’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문화활동은 예술적 장르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활동, 주민들이 모이는 동네 카페모임, 주민 소통을 위한 미디어 활용, 마을축제 현장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표 2-2〉 마을문화활동과 지역단위 자기개발활동

	자기개발활동	마을문화활동
공통점	지역기반	지역기반
활동목적	자기개발	마을형성 또는 주민 간 관계구성
활동목표	수준향상	주민 간 관계형성
결과양태	발표나 행사참여	마을축제나 주민 간 소통
장르영역	예술분야	생활-여가-지역 등 다양한 분야

자료: 라도삼(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 간의 관계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문화’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들 사이의 관계형성 및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마을문화활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기에 자기개발 성격과 마을활동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마을문화활동에는 ‘마을’과 ‘문화’가 다 들어있어야 하며 어느 것도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림 2-1〉 마을문화의 특성과 영역

자료: 라도삼(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절 마을문화와 예술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서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벽화, 축제, 미디어 등 주민들의 활동의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문화는 정체감을 공유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참여, 공감, 소통 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의 경우 공동체의 활동이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이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회복에서 문화활동의 유의미성을 증명하고 있다.(Hoynes, 2003; Jeannotte, 2003; Chapple&Jackson, 2010; Madyaninggrum, 2011; 손은하, 2011; 라도삼, 2012; 민소영, 2013)

공동체 내에서 예술활동 과정의 참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는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부심, 성취감 등을 느끼게 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전병태, 2007:25) 지역만들기 혹은 지역의 특성화에 예술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도 보다 예술이 지닌 사회적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1. 공공미술에서 공동체 예술로

마을문화활동은 지역활동이면서 한편으로 예술활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 혹은 ‘공동체 예술’이라 칭하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과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실천하고 있다. 영어의 커뮤니티든 우리말의 공동체든 두 용어 모두 지리적 성격을 반드시 포괄하는 것이 아님에도 커뮤니티 아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주로 예술활동의 현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커뮤니티 아트의 발전이 공공미술에서의 “장소 특정적 미술(site specific art)”(권미원, 2013)의 전환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미술(public art)은 근대 국민국가의 모뉴먼트 전통과 공공성 사이에서의 갈등과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모색의 과정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박삼철, 2006) 20세기 들어 모뉴먼트의 규모와 영웅적 서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들을 포용하며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 공간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을 낳았다.³⁾ 공공장소에 미술을 설치하는 ‘공공 공간 속의 미술’은 1967년 공공미술로 제도

화된다.⁴⁾ 그러면서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젝트들은 도시 재생, 관광 등의 경제 활성화, 장소마케팅 등과 결합하며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공공 공간 속의 미술’ 작품들은 공원, 광장, 거리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적인 장소에 설치되었기에 ‘공공적’이라 간주되었을 뿐 어떤 공공적 특성도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서는 ‘공공 공간 속의 미술’은 미학적 계몽도 도시 미화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권미원, 2013: 97~104)

공공미술은 ‘공공’ 장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공공 공간 속의 미술’은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로 발전했다. ‘공공 공간 속의 미술’ 작품이 장소와의 무맥락적인 관계를 가졌던 반면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작품들은 특정 위치에 맞춰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특정한 접근을 하고자 했다. 공공미술은 자율적 작품이기 보다는 그것이 놓이는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공공미술은 벤치,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대신하거나 거리나 광장의 패턴을 꾸미고 울타리, 벽등을 작품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공간의 미적 쾌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의미로 공간을 받아들여게끔 했다.(박삼철, 2006: 120~135)

1990년대 들어 공공성을 장소에서 찾았던 기존의 공공미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예술 실천의 흐름이 등장했다. 새로운 흐름의 공공미술은 ‘공익 속의 미술(art in public interest)’ 혹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NGPA)’이라 칭해졌다. 새로운 흐름의 공공미술은 공공 공간이 사람들의 삶터로서의 장소이며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공공미술은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보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한 참여와 개입의 예술실천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흐름의 공공미술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과정 중심의 작업이 되며, 단지 물리적 조건에 맞춰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제안한다.(레비츠키, 2013: 149~153)

3) 멕시코 혁명 이후 멕시코의 예술가 리베라(Diego Rivera), 오로즈코(Jose Clemente Orozco),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등은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흔하게 접하는 벽이라는 공공 공간으로 미술을 끌어내는 벽화 운동을 펼쳤다. 이후 대공황 시기의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의 벽화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공공장소에 미술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의 본래적인 목적은 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4) 영국의 경우 미술행정가 윌렛(John Willett)은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하고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는 미학적 계몽과 도시 미화를 위한 ‘공공장소 미술 사업(Art in Public Places Program)’을 제도화했다.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는 그 이념적 단초를 1970~80년대 민중문화운동에서 찾는다.(김종길, 2012; 박미연, 2013)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의 저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중의 대동성, 공동체성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실천이었다. 이 문화적 기반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의 정서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종길, 2012: 84) 민중미술은 “예술의 개념을 사회 현실, 그 속에서의 개인의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으면서 다양한 공동체의 실천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박미연, 2013: 88)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이 현실에 개입하고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커뮤니티 아트 속에 민중미술의 문제의식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아트의 아트는 미술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아트는 미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이론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예술적 실천이 미술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⁵⁾ 쟈 코헨크루즈(Jan Cohen-Cruz)는 “예술가들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작업으로 참가한 사람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주제가 되고 집단적인 의미를 표시하게 되는 예술의 영역”(2008: 15)으로, 수잔 레이시는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 예술”(2011: 24)로 지칭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과 수행에 주목하고 삶의 변화를 주제로 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과 커뮤니티와 관련된 주제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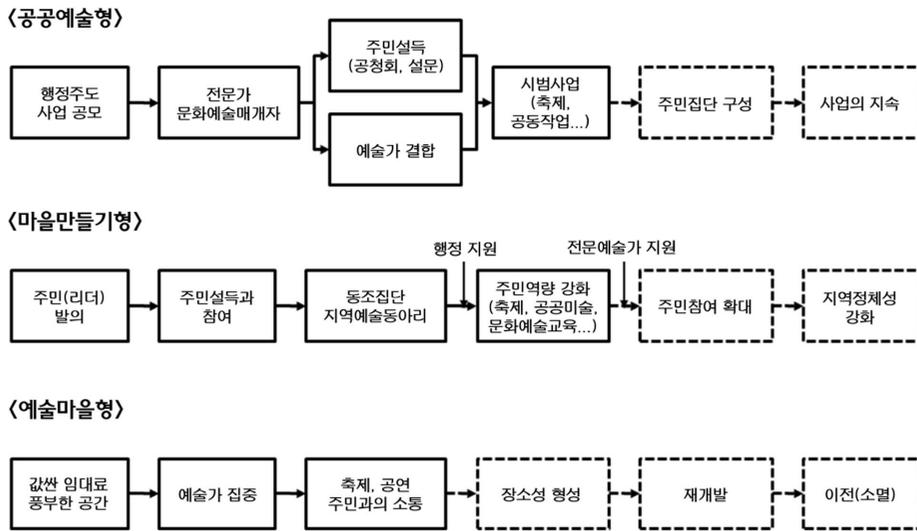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예술활동은 공공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동으로 변화해 왔다. 오늘날의 예술활동에서는 삶을 전시장으로 이전하여 재현하는 이전의 예술과 달리 삶의 현장이 곧 예술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예술은 지역과 사회로 파고들어 공공 공간과 공동체 내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며 의미를 새로이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이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결합할 때 마을을 매개로 한 예술이 되며 마을 문화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 되는 것이다.

5) 외국에서도 커뮤니티 아트, 지역예술(Local Arts) 등이 쓰이기도 하고, 기존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기반 공공미술(community-bases public arts)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새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라 하는 한편 이러한 실행들을 범주화하기 보다 실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광의의 용어로 행동주의적 문화실행(activist cultural practice)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예술활동을 포함하기 위하여 public art에 해당하는 번역어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공 예술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미술은 공공예술의 한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디자인도 공공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한편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 예술 혹은 공동체 기반 예술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지역활성화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의 역사에 대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례를 찾고 있다.(백선혜, 2012: 35) 기자촌(은평구 구파발), 문화촌(서대문구 홍은동), 예술촌(동작구 사당동 예술인 마을) 등을 사례로 꼽고 있으니 실제 이 지역은 ‘마을만들기’보다는 집단거주 형태의 마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예술을 도입하면서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하고 ‘문화환경’을 강조하며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결합하는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재래시장의 전통문화시장화 등 다양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술과 디자인, 지역문화만들기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문화예술과 마을만들기의 결합을 다방면에서 시도해왔다.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는 크게 마을만들기형, 예술마을형, 공공예술형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백선혜, 2008: 37~38) 마을만들기 형은 주민들의 자생적 모임이나 활동으로 예술을 활용하면서 지역만들기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의 개입 없이 주민공동체나 동아리 등이 주민 참여와 활동이 동력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가장 좋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주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과 네트워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을 들 수 있다. 예술마을 형은 저렴한 임대료나 활용공간의 유용함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예술활동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형태이다. 그 지역에 원래 예술가들이 거주해 있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기에 외부에서 예술가들이 유입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민들과의 교류나 관계가 약한 경우가 많다. 지역활성화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불리는 현상을 보이면서 상업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나 서울 문래동 예술창작촌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 2-2〉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의 유형별 프로세스와 한계

자료 : 백선혜(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p.128.

공공예술 형은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에 공공예술을 도입하는 유형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지역에 예술자원을 끌어들이어 지역재생이나 활성화를 시도한다. 행정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력이 좋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 주도 사업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심지어는 주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공예술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예산 지원 같은 행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2006년 문체부의 〈Art in city(아트인시티)〉 사업이나 2008년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2000년대 초반 〈창문아트센터〉,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안양천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리즘〉 등 예술가들의 지역 기반의 예술활동이 활발해졌다. 예술가들의 공공미술 영역의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공공예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광부는 복권기금으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이란 명칭의 〈아트인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공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화하는 작업이다. 2006년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은 〈열 개의 이웃〉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2007년에 도시 자체가 작품이라는 개념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공공미술 개념과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문체부의 사업으로만 추진된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공공예술을 내걸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곤 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⁶⁾,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여러 지역 사례들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재생 사업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벽화 그리기, 공공 공간을 조성하거나 꾸미는 작업 등은 그 자체로 공공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때로는 예술가나 문화기획자가 개별 사업을 주도하거나 결합하여 공동체 조성이나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예술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부족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대해 논쟁거리를 남겼다.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획자나 예술가들은 행정 주도적 프로젝트 특성으로 인해 예술적 성과보다 가시적인 행정적 성과를 중시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지역에서의 예술의 공유와 확장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취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사이의 간극이 넓다는 것도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된다. 문체부의 <아트인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마을회관, 공원, 광장, 골목길, 놀이터 등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공간을 재설계하는 작업이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상호작용, 작업의 공동성 등이 중요했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 인해 장식적 작품의 설치라는 일시적인 환경미화 사업에 머무르고 주민참여형의 공동체 예술로 발전하지 못했다.⁷⁾ 아직은 이렇게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마을문화로 발전하기 보다는 공공 공간에서 행해진 예술가들의 작업으로 남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공공성의 개념, 주민들의 참여와 개입, 예술가와 지역과의 협업, 행정의 관여, 프로젝트의 지속성, 지역재생 또는 활성화와 예술의 역할 등 많은 이슈들을 안은 채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6) 2008년 취약주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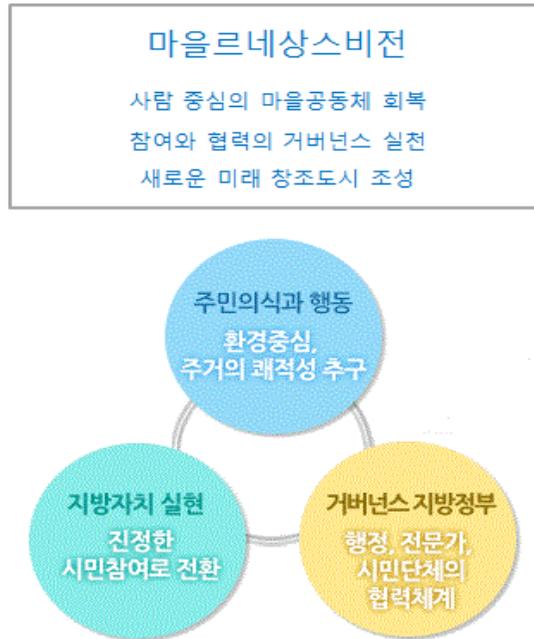
7) <아트인시티> 사업은 2006~7년에 추진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제3절 수원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1. 마을르네상스 사업

1) 사업개요⁸⁾

수원시는 급격한 외형확대에 따른 도시의 중심이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변화 모색의 움직임과 더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을르네상스란 브랜드를 가지고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림 2-3〉 마을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방향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maeulcenter.or.kr>

8)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의 소개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림 2-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의 단계별 추진전략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maeulcenter.or.kr>

마을르네상스는 주민과 지원주체의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은 자발적 주민조직인 공모사업 추진주체와 동별 마을르네상스 협의기구인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다. 지원주체는 거버넌스 기구와 단체·작가·연구·자기업 등 민간주체, 행정, 그리고 관심주체별 네트워크 조직이 있다.



〈그림 2-5〉 마을르네상스 참여 그룹 관계도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maeulcenter.or.kr>

마을르네상스의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민조직은 주민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기업, 행정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주민조직은 마을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각 주민센터에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각 마을 별로 동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환경수도, 마을경제, 도시가드너, 에너지 절감, 주거환경 개선, 자원 재활용 등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주요 기능은 마을별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의 협의 및 결정, 추진상황 확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마을사업의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상 및 주요 시책사업 협조 및 홍보 추진 등이다.

공모사업의 절차는 준비 및 신청단계, 평가 및 교육단계, 추진단계로 진행된다.⁹⁾ 준비 및 신청단계에서는 차년도를 위한 사전공모사업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공모사업 접수 등이 이뤄지고, 평가 및 교육단계에서는 주민참여평가제 및 평가위원회, 사전공모사업 예비선정공고, 교육 및 컨설팅, 사전공모사업지원사업비 확정 공고 등이 이뤄지며, 추진 단계에서는 이듬해로 넘어가 실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칭찬대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뉘지는데 1차에서는 행정협의체의 협의 및 검토가 행해지고, 2차에서 주민참여평가제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 및 컨설팅은 공모사업 추진 전 선정된 공모사업의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데 마을만들기 이론교육, 회계교육, 사업 및 예산계획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공모사업의 절차는 매년 조금씩 다른 절차를 거쳐 시행했는데 여기서는 2016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그림 2-6〉 공모사업 절차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maeulcenter.or.kr>

2) 사업현황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57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은 해마다 약간의 변형은 있으나 크게는 공동체 유형, 시설공간 유형, 기획공모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체 유형은 마을조사 및 주민학습, 마을미디어 등 주민자치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설공간 유형은 담장이나 벽면개선과 같이 마을 내 환경개선이거나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활동, 기획공모는 저탄소녹색성장(생태교통), 재활용리폼,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특화된 분야의 활동이다.

〈표 2-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계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2011	31	132,550	13	91,976	11	12,000	-	-	-	-	55	685,076
2012	91	409,191	17	232,216	20	561,750	8	132,200	-	-	136	1,335,337
2013	95	374,442	9	63,002	22	372,882	14	232,380	10	8,560	150	1,051,376
2014	104	383,713	26		269,071		12	490,000	-	-	142	1,142,784
2015	113	389,809	31		393,078		-	-	-	-	144	782,887
2016	75	286,366	13		148,76		42	418,305	-	-	130	853,438

2.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이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⁰⁾ 이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가 동네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이지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가나 단체를 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세부적은 측면에서의 일부 변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예술 프로젝트(지역 공동체 예술)나 동네 문화기반시설¹¹⁾ 및 문화거점¹²⁾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일부 시군¹³⁾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전체 사업을 총괄하며 전반적인 사업방향성 설정,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를 담당하고, 기초문화재단은 1:1 이상의 기초지자체 예산 배정과 더불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해당 지자체에서의 실질적인 공모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수원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수원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해왔다. 경기문화재단이 당해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심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내에서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신청서 배포와 접수, 심의 진행, 선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의 실제적인 공모사업 전체 과정을 수행한다. 사업 첫 해인 2013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5,000만 원과 수원시 예산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원 규모로 운영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총 2억 5,400만 원으로 사업규모도 커지고 매칭 비율도 3.5:6.5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초기에는 공모사업만을 지원한 반면 2014년도부터는 기획사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 밀착형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 경기문화재단은 각 지자체의 다양한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지역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사업명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에서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11)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12) 마을회관, 갤러리카페, 북카페,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13) 2016년도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군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의 11개 시에서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건수	지원액
2013	15	100,000
2014	12	118,000
2015	12	106,000
2016	16	159,000

제3장

마을문화활동 사례와 현황

제1절 마을문화활동의 현장 사례

제2절 마을문화활동 지원 기관

제3절 마을문화활동 실태와 인식

제3장 마을문화활동 사례와 현황

제1절 마을문화활동의 현장 사례

1. 조사설계

사례조사를 위해 우선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수원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아트 사업 지원대상자를 검토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목록과 자료집 등 검토하여 문화활동 중심의 사업을 분류하였다. 이중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단체들 가운데서 지역, 활동 분야, 단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층조사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였다. 활동 분야로는 마을신문 같은 미디어 활동,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술 중심 활동, 마을 축제 활동, 도서관이나 인문학 모임 같은 교육·학습 활동, 생태·환경적인 문화활동 등으로 유형화했다. 단체 성격으로는 동아리 형태의 자발적 모임,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 예술가나 기획자, 시민활동가 등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화된 단체 등을 고려하였다.

커뮤니티 아트에 기반하는 마을문화활동 사례로는 수원문화재단을 통해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작가나 단체들 가운데 우수 사례를 추천받았다. 후술하겠지만 수원문화재단의 지원단체들은 공동체 기반 활동이기 보다는 예술가 중심의 활동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해당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았다.

마을르네상스와 수원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에 추가하고자 하였다. 일차로 선정한 단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관 단체들을 추천받거나 소개받으려 했으나 실제 성사되지 않았다. 추천 또는 소개받은 몇 개의 단체들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어서 실제로 공모사업의 지원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단체 사례는 없다.¹⁴⁾

조사는 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의 대표나 주요 실무자를 만나 활동의 배경, 현황, 현안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4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행하였다.

14) 소개받은 단체 중 한 개만이 공모사업과 무관하였으나 단체의 성격상 마을문화활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그 단체는 인터뷰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제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다.

〈표 3-1〉 조사대상

구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미디어		칠보공동체(마을신문)	사이다	
예술 중심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		문화상회 다담 금빛합창단	
마을축제		군들 청룡문화제		
교육학습	화서동 꽃피마을	푸른언덕 좋은사람들	지구별상상	
생태환경		서둔동 가드닝밸리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 다울공동체	
기타		경기인형극진흥회		매탄4동마을만들기협의회

2. 현장 사례

1) 칠보공동체¹⁵⁾

(1) 개요

칠보산공동체는 1994년경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LG빌리지에 전교조 선생님들 몇 분이 이사를 오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육아에 대한 고민이 공동육아로 연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칠보의 자연부락인 자목마을에 역시 전교조 활동을 하시는 박○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분께서 이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동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들을 공교육 시스템에 들여보내는 것 외에 대안은 없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다시 토론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2~3년의 스테디와 준비를 거쳐 2005년 초 등과정의 대안학교인 칠보산자유학교를 설립하였다. 공동육아를 시작하고 대안학교를 만든 부모들은 초기에는 아이들의 교육이 유일한 관심사였지만 아이들이 커서 조금씩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부모들 간의 취미모임이나 공부모임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생겨났다. 공동육아와 자유학교를 통해 만난 부모들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소모임에 교육 영역 밖의 공동체 일원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칠보산 공동체는 조금씩 확대되고 성장했다.

15) 면담자: 달님(칠보꽃밭상, 칠보문화홀이터, 박민수(칠보농약전수회, 칠보꽃밭상 감사). 달님(이계순)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칠보산 자유학교를 보고 이사왔고, 박민수선생님도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찾던 중 칠보산을 알게 되어 2007년경 이사 오신 후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 운영현황

공동육아와 대안학교를 통해 만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 보니 과거에는 친밀했던 관계들이 소원해 지거나 서로 자주 볼 수 없게 되고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살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종자돈 삼아 마을신문을 발간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단체의 구성원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마을신문 발간을 위해 사이좋은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칠보산자유학교, 도토리교실, 뚝방, 칠보농악전수회, 지역아동센터, 한살림 등이 모였다.

마을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지역취재를 하면서 칠보 구도심의 상황, 마을의 옛 이야기들에 대해 알게 되고 마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입점에 정으로 인해 구상권이 위협받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서 칠보상인협동조합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 칠보상인협동조합이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의 일부를 할애 받아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마을 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칠보문화놀이터’이다. 칠보문화놀이터는 구상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 이곳에서는 각종 주민모임과 문화강좌 등이 열린다. 칠보농악전수회의 활동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에 결성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칠보의 일반주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1〉 칠보산 마을신문 카페



〈그림 3-2〉 칠보산 생활놀이 공동체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3) 특징 및 시사점

칠보산공동체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있는 형

태이다. 아이들의 공동육아로 시작된 활동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대안학교, 방과후학교, 도토리교실 등의 또 다른 교육활동으로 확산되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시간이 생긴 부모들의 관심사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보다는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들을 만들고 흘러 가는대로 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마을활동 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생활영역에서의 관심과 필요에 의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10년경, 이렇게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이어져 오던 활동이 이제는 ‘칠보산마을공동체’라는 구심점을 갖고 ‘공동체가 좀 더 마을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그 이후로 ‘칠보산공동체’는 ‘마을’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받아 안고 갈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칠보산공동체 내부의 이슈 중 하나는 외부 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칠보산공동체의 활동이 커지고 지속되면서 외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공동체 내부에서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한다.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칫 공동체의 자생력과 활동의 생명력을 저해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 골목잡지 사이다¹⁶⁾

(1) 개요

골목잡지 ‘사이다’는 동네 골목골목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지역매체이다. 사이다의 최서영 편집장은 출판,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출판디자인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네이야기를 담아내는 지역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게 되었다. 또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일로만 만나게 되니 점점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졌고 그것이 잡지였다. 무작정 함께 잡지를 만들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생각하는 상도 달랐고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 먼저 일을 저지르게 된다. 출판디자인을 하고 있으니 콘텐츠를 잡고 글을 모으면 잡지를 발간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망설임과 준비 끝에 2012년 4월 행궁동에 있는 ‘남수동’이란 동네를 타이틀로 첫 잡지를 발간한다. 그 이후 남창동, 장안동, 매향동, 신흥동, 북수동, 교동, 매산동,

16) 면담자 : 최서영(사이다 편집장)은 골목잡지 사이다의 편집장이면서 사회적기업 ‘더 페이퍼’의 대표이기도 하다.

서둔동, 세류동, 영화동, 고등동에 대한 골목잡지를 꾸준히 발행해 왔다. 현재 칠보마을로 13호를 준비하고 있다. 사이다는 매 호마다 5천부씩을 발행하고 있다. 꽤 많은 양이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접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계속 그렇게 발행하고 있다.



〈그림 3-3〉 골목잡지 사이다와 주민활동들

자료 : 골목잡지 사이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wonsaida/>

(2) 운영현황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빠르게 옛 것이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오래된 물건이나 전통적인 생활방식, 미풍양속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사이다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옛 동네들에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과 추억을 기록하고 있다. 동네에 오랫동안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옛 추억을 되살리고 오래된 물건과 사진 등에서 개인의 역사를 집어본다. 유명인사의 삶이 아닌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일상’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이다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같이 하자고 부산스럽게 제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잡지라는 ‘마당’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글도 쓰고,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문화를 매개로 ‘놀이’를 바라는 것이다.

잡지를 발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이다. 사이다는 무가지이다 보니 수익이 없다. 광고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판디자인 회사에서 돈을 벌며 잡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잡지를 제대로 발행하려다 보니 직원을 늘려야 했다. 디자이너에서 잡지 편집장으로, 이제는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니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듯하다.

처음에는 마을로 취재를 가면 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인터뷰도 잘 응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제는 사이다가 어느 정도 알려지기도 했고, 설령 사이다를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도 잡지를 직접 보여주며 이런 동네 잡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쉽게 응해 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및 시사점

사이다의 앞으로의 계획은 잡지 발행을 넘어 지역출판운동으로 확산시켜 보는 것이다. 사이다의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멀리 제주에서도 찾아왔는데 내년 봄에 지역잡지를 출판예정이라고 알려왔단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잡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이다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과, 출판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출판 인력들을 키워내고 그들과 함께 출판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도 앞으로 사이다의 할 일이다.

사이다의 발행이 계속되어 동네에 대한 기록이 쌓이면, 잡지의 내용을 엮어 책으로 출판해 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어 관광이나 지역재생의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그냥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매일 매일의 반복일지 모르나 유심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면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천천히 관찰하는 눈과 귀가 필요하다. 사이다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유심히 바라봐주고 들어주는 ‘골목잡지’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¹⁷⁾

(1) 개요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1년 4월에 창단되었다. 창단 이듬해 2012년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위원회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예술활동을 통한 지역 사업을 수행해왔다.

찾아가는 음악회로 2011년 5월에는 AK홀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한 연주와 9월에는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에 참여하여 연주했다. 12월에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

17) 면담자: 최세훈(단장, 지휘자). 2011년 장안구 정자3동으로 이사와서 지역의 예술활동이 없는 것을 보고 오케스트라를 만들 것을 장안구에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장안구청장과 정자3동 동장의 협력에 힘입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다.

하였고 수원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한 정기연주를 개최하였다.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 2012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경연대회에서 우수주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6월 2일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면서 설 곳이 있는 그런 장소를 찾던 중에 대형마트의 광장을 무대로 만들어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개방된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업 즉 지역의 대형마트와 함께 하는 이 연주회는 지금까지도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의 중요 프로젝트이다.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통한 마을르네상스는 추상적인 음악으로 주민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려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마을르네상스의 취지에 맞추어 청소년 문화를 매개체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그림 3-4〉 연주회 포스터

(2) 운영 현황

창단시에는 단원이 15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60여 명에 이른다. 장안구를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서 수원시뿐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다. 연습은 정자3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주, 4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다. 단원은 관현악과 피아노와 타악기 분야에서 지휘자의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한다.

심포니, 서곡, 영화음악, 가곡, 종교음악등을 연주하며, 정기연주뿐 아니라 음악캠프,

매년 3~4회의 연주를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주 활동도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그림 3-5〉 지역주민 대상 연주회 활동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는 악기를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대여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년 사업예산에 따라 운영횟수는 다르지만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 사업은 베네주엘라의 ‘엘 시스테마’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적용시킨 것으로 몇 명의 학생을 지속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재능을 성장시키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선생님이 되어 초보자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마을사업이나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창구로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보 등과 같은 연주에 수반되는 일들을 분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오케스트라 출신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수원장안시민오케스트라가 결성되었다. 수원장안시민오케스트라는 수원시 최초의 시민오케스트라이다.

(3) 특징 및 시사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특정한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와 결합되어 있는 예술실천에서 예술가 자신의 예술적 성취 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환원이나 봉사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차원의 재능기부로만 끝날 때 지속가

능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의 예술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금전적 보상없는 봉사만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이 마을만들기 활동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마을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예술행위에서는 예술적 기량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과의 소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술 장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술적 성격이 지배적인 활동에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술활동이 마을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예술활동과 마을사업은 어떻게 결합되는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4) 문화상회 다담¹⁸⁾

(1) 개요

문화상회 다담은 행궁동에 위치한 카페와 갤러리를 겸한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조합형태로 설립되었고 강좌와 콘서트, 공동체를 기반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상회 다담은 상업 갤러리인 씨드갤러리가 그 시작이다. 쉬운 전시를 해도 사람들이 갤러리라는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인지 공간에 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마을에서의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2013년데 지금 이곳 신평동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상회 다담이란 이름으로 커피도 팔고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면서 갤러리를 겸한 카페를 열게 되었다.

(2) 현황

다담은 현재 일반인들이 미술에 친숙하게 접근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미술과 친해지는 교실인 ‘미친교실’을 비롯해 작가와 평론가를 매칭해 지역에 소개하는 ‘화수공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상회 다담은 일반 사람들이 미술을 친숙하게 여기고 쉽게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는데 미술 일각에서는 왜 자꾸 미술을 밑으로 끌어내리려 하느냐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담의 생각은, 첫 진입을 도울 수

18) 면담자: 김영환(공동대표)

있는 낮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다담은 한 달에 한 번 하우스 콘서트를 열고 있다. 초기에는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했는데 2015년부터 음료값을 포함한 입장료로 1만원씩을 선입금 받고 있다. 초기 무료 공연일 때 장소가 협소한지라 좌석배정을 위해 예약을 받았는데 절반가량이 예약링크를 내서 유료로 전환했더니 예약링크도 없고 관객의 집중도도 훨씬 좋아졌다.



〈그림 3-6〉 다담 공간 내외부 전경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문화상회 다담은 공공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 마을 안에서의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때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도 생긴다.

행궁동에는 현재 많은 마을관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 많은 일들이 문화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다담의 설명이다. 마을에 많이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기에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행궁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특정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문화상회 다담은 마을 안에서의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담의 정체성들을 살려가면서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안에 문화를 매개로 한 공간이 존재하고 예술적 성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분명 마을공동체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5) 금빛합창단¹⁹⁾

(1) 개요

금빛합창단은 55세 이상의 중년들이 활동하는 합창단으로 2011년 행궁동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단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행궁동에서 오랫동안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렬 ‘극단 성’ 대표가 의견을 냈고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제안해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처음 단원을 모집했을 때 8명이 모였다. 지휘자와 반주자를 섭외하고 단장을 선출하며 연습을 시작한 금빛합창단은 그해 11월 행궁동 한데우물 축제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된다.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중년 어르신들의 합창단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합창단 단원도 늘고 외부 초청 공연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80명의 단원이 매주 월요일 오전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2) 과정 및 운영현황

평균연령 65세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모인 합창단은 이후 마을만들기 행사 등에 단골 초청 합창단이 되면서 외부 공연도 많아지고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즈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도 경연대회 등에 나가 우승을 한다. 무엇보다 합창단원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합창단을 시작하면서 노래를 주제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자제분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합창단의 연습곡을 함께 연습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연을 가족들이 관람을 오면서 가족 안에서도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이다. 합창단이 한 참 바쁘게 활동할 때는 외부초청공연이 1년에 30회를 넘기도 했고 단원수가 124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19) 면담자 : 한창석(금빛합창단 단장)은 금빛합창단 창단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합창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장으로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금빛합창단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했기에 초기에는 비교적 합창단 운영이 수월했다. 지원금의 일부를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례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합창단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금빛합창단은 단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와 외부 공연시에 들어오는 사례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례비를 다행히 주민센터를 통해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림 3-7〉 금빛합창단 연주활동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http://www.maeulcenter.or.kr/>

(3) 시사점

합창단이 창단되고 몇 년은 행궁동레지던시에 사무실도 두고 지하 극장에서 연습도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행궁동레지던시가 철거되면서 새로 이전한 레지던시에서는 연습이 어려워 현재 팔달문시장 상인회 문화센터를 빌려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금빛합창단 창단부터 지금까지 단장을 맡아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한창석 단장님은 합창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습 공간 문제를 꼽았다. 그나마 단장이 팔달문 상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상인회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합창단 연습공간을 구하지 못해 많은 애를 먹었을 것이란다.

금빛합창단의 경우처럼 활동공간은 많은 단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사실상 비어있는 공간들이 종종 있다. 지역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의 공간들을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고 운영해 준다면 시민활

동도 더욱 활발해 지고 생활문화를 권장하기 위해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에서 많은 활동의 주체들이 생겨나고 동아리들이 결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면 활동도 조용히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금빛합창단의 지속적인 운영은 시사점이 크다. 거기에는 합창단내에서 지휘자와 단장, 총무의 역할분담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문화, 매달 회비를 납부하며 단체의 운영 재원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 그리고 합창단 활동에 대한 자부심등이 있다고 한창석 단장은 말한다.

6) 군들 청룡문화제²⁰⁾

(1) 개요

군들 청룡문화제는 2012년 1회 축제가 개최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구운동의 마을축제이다. 9마리의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는 지역의 전설²¹⁾을 바탕으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승천제 제례의식과 더불어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합 문화축제로 기획되었다.

청룡문화제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명유래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명품 구운동 르네상스를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축제는 매년 9~10월 경에 구운동 일원 및 일월공원에서 열린다. 2015년까지 4회의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에는 5회 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20) 면담자: 정규수(주민자치위원장). 구운동 토박이로 2006~08년 주민자치위원장 및 제3회, 4회 군들청룡문화제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1) 머리가 아홉개 달린 용(九雲龍)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는 것에서 마을 뒷산을 청룡산(靑龍山)이라 하고 마을 이름을 구운(九雲)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3-8〉 행사 포스터

(2) 운영 현황

축제를 주관하는 것은 군들 청룡문화제 추진위원회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복지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동네 10개 단체가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축제를 운영한다. 협력단체들은 단체별 전담행사를 맡아 운영하고, 추진위원회는 각종 행사들을 조정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동 주민센터는 공원사용 승인 등 행정사항을 처리해주고 행사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해준다.

시가행진에 사용되는 용 조형물을 1,2회에는 임대하여 사용했으나 3회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고 이후에는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운초, 일월초 등 관내 위치한 초·중학교와 연계한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의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 및 서호노인복지관 등 주민공원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또한 부대행사로 각종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열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간직한 옛 사진을 전시하여 구운동의 옛 모습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실제 무대설치를 포함한 행사진행은 수원방송이나 공연기획사에게 대행을 주고 있다. 일반 공연기획사 보다는 수원방송이 방송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대설치 등에서 주민들의 선호가 더 높은 편이다.

재원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보조금과 자부담뿐 아니라 관내 농협수원수산물유통센터 및 소상공인들의 현금 또는 현물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사업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은 각 500만원이며 지역주민들의 협찬금은 매년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2,000만원을 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마을르네상스사업 보조금으로 300만원, 시 문화관광과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림 3-9〉 청룡문화제 현장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http://www.maeulcenter.or.kr/>

〈표 3-2〉 제5회 군들 청룡문화제 프로그램

시간	행사	세부 프로그램
15:00~17:00	용 시가행진	사물놀이-청룡황룡-만장기-주민 행진구간: 구운동주민센터 - 구운동 - 구운오거리 - 일월상가 일원 - 일월공원
17:00~17:20	용정제례의식	제례의식 사물놀이
17:20~17:40	식전행사	통기타 공연 태권도시범 민요사물팀 오카리나 리코더
17:40~18:00	개막식	경과보고 구운동 전설 및 유래 소개 인사말씀 축사
18:00~20:00	화합한마당	주민노래자랑 및 공연 축하공연 시상식 및 경품추첨 폐회식
14:00~18:00	부대행사	클레이아트 연필인물화 그리기 캘리그래피 떡메치기 체험 먹거리 장터 농산물직거래장터(나눔장터)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축제 재원의 절반 이상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역 사업의 재원이 지역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마쓰리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모금이 축제 재원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축제에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축제 후원 또한 참여의 한 방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청룡문화제를 주관하는 주체들이 보기에 주민들 일부가 비용을 충당하는 현재의 양상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의 보조금으로 행사의 재원이 충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협찬에 참여하는 주민은 매우 제한적인데 주로 각종 관 주도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그러다 보니 지속되는 후원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행사에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금을 모으는 것을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군들청룡문화제는 마을축제의 운영과 형태,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공한다. 주민들이 직접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 뿐만 아니라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축제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주민 즉 관객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행사 운영은 비용을 주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 축제에서의 주민들은 관객으로서 머무르게 되고 축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참여밖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화활동 즉, 축제의 질을 높이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고 매개하기 위해서 문화기획자의 결합이 필요한 것이다.

7) 꽃피버들마을 LG아파트²²⁾

(1) 개요

꽃피버들마을 LG아파트는 문화단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LG아파트 동대표회장인 조안나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어 교육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준비해 왔으나 일이 잘 되질

22) 면담자 : 조안나(동대표회장)는 아파트에서도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천천히 증명해 가고 있다. 아파트 화단에 심기 시작한 꽃 한 송이가 그 시작이었다.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때가 2003년 5월이다. 아이들이 어리기에 주변의 몇몇 엄마와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함께 돌보았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었는데, 몇 일후 보니 그 바로 옆에 누군가가 꽃을 심어놓았더라. 몇 일후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연이 벌써 14년째다. 그렇게 아이들과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고 부녀회 같은 활동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동대표도 맡아 하고 있다. 2010년경에는 ‘꽃피버들마을 나누며 가꾸기 모임’이라는 자원봉사단체도 설립해 마을에 봉사하고 있으며, 2011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받아 아파트 지하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0〉 꽃피버들마을 LG아파트 화단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http://www.maeulcenter.or.kr/>

(2) 과정 및 현황

화단에 계속 꽃을 심다보니 한국기록원에 대한민국 아파트 중 식물종이 가장 많은 아파트로 기록되었다. 이후 언론에도 소개되고 하면서 이제는 제법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이 마을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지사가 ‘따복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마을을 모델로 삼았다고 밝히면서이다. 그 후로 더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많은 인터뷰와 사례소개 요청이 있었다. 현재는 마을만들기 단체들에서 탐방을 오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의 촬영이 진행되기도 했다. 아파트가 유명해 지니 이런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다큐 촬영도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랜 회의 끝에 촬영을 결정했다고 한다.

처음엔 무엇을 의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꽃을 좀 심어봐야겠다고 한 것이 함께 하는 이웃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웃 어르신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하나둘 들어 들이다 보니 부녀회장도 하고 동대표회장까지 하게 되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고 엄마들과 봉사단체도 만들어 봉사도 하고 아파트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주민들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운영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함께 하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있는지 아파트 지하공간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것 이라는 것이다. 벼룩시장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낮 시간에 이루어지니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밤에 진행되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소음 민원으로 인해 경찰이 한 두 번은 꼭 온다고 한다. 100명이 좋아해도 1명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곳이 아파트란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살고 있으니 개개인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3)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 주거 비중이 높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 49.6%(2014년 기준)²³⁾에 달하는데 수원시는 아파트 거주자가 56.9%²⁴⁾로 전국 비율보다도 높다. 전통적 방식의 마을단위의 공동체는 이제 시골마을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는 사실상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열린 공동체 보다는 고립된 삶의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안나 대표는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웃이 있으면 그들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쁜 아침에 밥이 없으면 밥을 얻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집의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갑자기 불안해 지면 확인을 부탁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웃 공동체’가 있는 것이 마을이라는 것이다.

마을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요구받기도 하고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같은 것으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도 같고 해서 이제 공

23)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24) 2015년 수원시 사회조사

모사업은 가급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냥 우리가 즐겁고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마을이건 단체건 누군가 나서서 일을 꾸준히 진행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일을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생기기 마련이다. 조안나 대표의 경우도 10년 이상 아파트에서 꾸준히 활동하니 어느새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시기도 받게 되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상황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도 많은 역할을 요구 받으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점도 있다. 마을에서 활동해 오던 주체가 지쳐 포기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례와 성과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8) 푸른언덕 좋은사람들²⁵⁾

(1) 개요

푸른 언덕 좋은 사람들은 행정동으로는 평동, 법정동으로는 오목천동에 위치한 490세대 청구2차 아파트 거점 단체이다. 도시민들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가진 구조에서 관계, 더불어 삶과 같은 문화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되었다. 오목천 청구2차 아파트의 경우, 고색동, 평동과 같이 토박이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고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향수가 남아있는 곳이다. 최근 수인선이 개통되고 오목천(명칭 예정) 역사(驛寺)가 자리 잡을 예정이고 인근의 재개발구역의 사업재개 등 작은 동네지만 큰 이슈들이 얽혀 있기도 하다.

2013년 경기도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젝트가 동인이 되어 활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 아파트 내에 버려져 있던 지하공간을 드러내어 주민들의 학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다양한 마을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25) 면담자: 이선웅(대표). 33년간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2007년 전역. 61세. 해병대 근무 당시 관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구2차 아파트에 있어 그때부터 살고 있는 셈이다. 16년 정도 거주. 군에서는 전산을 했는데 근무하면서 철학, 한문, 역사 등을 공부했다. 배움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전역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입주자대표로 자연스럽게 동네 일에 참여하게 된 게 계기가 되었다.



〈그림 3-11〉 청구아파트 좋은 마을학교 입구 및 내부

(2) 과정 및 운영현황

이선웅은 2012년 입주자대표를 맡게 되면서 뭔가 하나 남겨놔야겠다 싶어 시작한 계동네에서 일어나는 수요를 동네 안에서 해결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테면 경비, 청소 용역, 재활용 용역 등의 자격을 입주민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의욕만 앞서고 시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생겼다고 보여진다. 2013년 경기도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의 일환으로 꿈작학습마을에 참여하면서 오목천동 청구2차 아파트의 마을에 대한 도전이 구체화되었다.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은 경기도의 평생학습 프로젝트로 주민중심의 인재양성 사업을 표방한 학습기반 일자리창출 사업이었다. 당시 동장이었던 이병규의 제안으로 고색동의 태산아파트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인근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시행처로 첫 해에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된다. 주민강사를 모집하여 역사, 심리미술, 냅킨아트, 솟대만들기, 서예 등등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이후 3년간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듬해에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넓히는데 그때 푸른 언덕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꿈작학습마을 사업을 마을 개념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이뤄지면서 버려져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습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기능 역시 공간을 여는 자리에 수원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지원을 약속받으면 탄력을 받게 된다. 이선웅이 퇴임한 해병대사령부의 도서관에서 필요 없는 어린이 도서를 기증받은 5천여 권의 책을 더해 지금의 꼴이 갖춰지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 도예실, 서각실, 서예실, 모임방 전시실, 공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른 언덕 좋은 사람들 외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단

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마을사랑수집소, 웃음제작소, 좋은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등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지속하고 현재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3) 특징 및 시사점

오목천 청구2차 아파트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토박이 문화가 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젊은 층을 이루고 있어 활동의 요구나 수요도 그만큼 다양하다. 이들의 활동이 교육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지만 연령과 관계 없이 삶의 필요를 느끼는 공통된 부분을 교육을 통해 잘 집어낸 셈이다. 예를 들면 심리 미술은 어린이들이, 라인댄스 요가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 서각은 남자들이나 젊은 사람, 수월팔색길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돋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강사를 잘 발굴하고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관계와 배움, 일련의 활동이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점이 특징이다.

아파트도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어진 문화적 경과가 눈에 띈다. 한 동네에서 이슈가 생기면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곳은 토박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푸른 언덕 좋은 사람들의 대표 이선웅은 자칫 동네 안에서 세대 갈등의 요소일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잘 아우르고 있는 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부분이 다른 계층에서는 못마땅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늘 있는 정도로 이해된다. 다만 마을 사업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대해 활동의 리더들이 어떤 태도와 해법, 시간의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선웅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소양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있어 보인다.

9)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²⁶⁾

(1) 개요

화서동에 위치한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은 리온소연과 그녀의 중국인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이주민센터 한국어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며 함께 해오고 있다. 리온소연은 수원시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교사로 봉사하던 2009년 결혼이민자 여성들과 함께 아이에게 보여줄 엄마의 ‘모국어영상동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과 함께 당시 서울 이문동과 안산에 있던 다

26) 면담자: 리온소연(관장)

문화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빌려와 엄마가 아이에게 읽어 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매번 서울이나 안산까지 가서 책을 빌려오고 반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차가 없는 이주민여성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 주어야 했다. 이민자 엄마들이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한글동화를 아이에게 읽어주는 일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엄마들은 책을 빌려와 엄마나라의 말로 책을 읽어 주면서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책을 빌리러 다니는 것도 번거로우니 수원에 아예 다문화도서관을 설립하자는 의견들이 모여져 도서관 설립을 준비하게 되는데, 책을 기증받고 주변사람들이 심시일반 힘을 모아 수원에도 엄마 나라의 동화책을 볼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이 생기게 된다.



〈그림 3-12〉 지구별상상 어른·청소년 프로그램

자료 :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local79/>

(2) 운영 현황

지구별상상이 다문화도서관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도 도서관으로 유지하며 책을 매개로 이주민 여성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 지구별상상에서의 도서관은 어쩌면 구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한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한국 가족인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아내가 또는 며느리가 이주민센터 같은 시설에 간다고 하면 싫어하는 기색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전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편하게 이곳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늘려주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이곳은 현재 이주민 여성들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악기연주를 하거나 영상을 제작해 보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인 셈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깊게 동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엄마의 재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구별상상은 아이에게 엄마의 모국어로 된 책을 읽혀주고 싶어 시작한 도서관이지만 처음부터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염두에 두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다문화인식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곳의 계획이다.

(3) 시사점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41,35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민 숫자이기에 등록되지 않은 체류자들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고등동, 세류동, 인계동, 화서동 등 구도심이면서 수원역과 인접한 마을들은 외국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 안에서 쉽게 외국인노동자 또는 결혼 이민자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구별상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문화도서관은 현재 외국인들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어 이제는 이름도 다문화도서관이 아닌 지구별상상으로 더 많이 불려지길 원한다. 다문화요리 프로그램에 동네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노래교실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이주여성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 작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요리 프로그램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고 이주민 행사나 축제 때에 동네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의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재정문제이다. 지구별상상이 만들어 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책을 기증해 주시기도 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운영비는 아직도 이곳의 버거운 숙제다. 초기 임대보증금도 주변에서 이자 없이 쓸 수 있도록 모아 주셨는데 아직 그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달 들어오는 약간의 후원으로 임대료의 절반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지구별상상은 도서관의 자립도도 높이고 이주여성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도 주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컨셉으로 케이터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는 않단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갈 것이지만 결혼이민자들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해도 아직 우리에게서 단단한 편견의 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어쩌면 그 서로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생동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좋은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공동체 구성원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유익하다.

10) 서둔동 가드닝벨리²⁷⁾

(1) 개요

도시농업과 사회적 활동, 관계에 열망이 있었던 이희자라는 인물의 삶에서 마을문화에 대한 씨앗이 싹텄다. 이희자는 이전의 삶과는 달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통장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난 것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응시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통장활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통장 활동을 시작하고 동시에 2010년 도시농부 과정을 전문가 과정을 마쳤는데 마침 수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르네상스사업으로 연결된 것이 서둔가드닝벨리의 시작이다.

당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제도화되면서 주민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되었는데 동 단위로 교육 참여자들이 할당되었다. 그녀는 관심이 있었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터라 열심히 참여했다. 당시 동장이었던 민완식의 역할도 큰데 그는 문화나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고 경기도청이나 수원시청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던 인물로 이희자의 행정적 지원자이자 조력자였다. 서둔가드닝벨리는 당시 서둔동에서 통장 활동을 하고 있던 6명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이희자 혼자 남았다. 그 외에 20여명의 회원이 있고 주요하게 활동하는 이들은 7~8명이다.

서둔가드닝벨리는 당시 동장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농업을 펼치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쓰레기더미와 철조망으로 엉망이었던 지금의 장소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27) 면담자: 이희자(대표). 연무동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림을 하던 이희자는 2009년 서둔동으로 이사 왔다. 부양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서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그림 3-13〉 가드닝밸리 풍경

(2) 과정 및 운영현황

2013년 첫해에는 동네 자투리 공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을 택하여 코스모스밭을 만들었다. 그 해 여름에 15곳에 상자텃밭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주민 20여명과 지금의 여기산 일대 공간을 정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은 본격적인 마을 사업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로 보인다.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여 일반 주민 29명에게 텃밭을 분양하였다(여기산 커뮤니티 가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분양하고 나머지를 나이순으로 추첨을 했다고 한다. 2016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여기산 입구와 서둔동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을 걸어 분양 홍보를 했는데 100여명의 사람들이 추첨에 참여했다. 70세 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배려하고 나머지 추첨을 한 결과 25명의 분양자들이 결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토마토, 아욱, 썩갓, 초석잠, 고추, 감자 등 각자 심은 작물들이 저마다의 꼴로 자라고 있었다. 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도 돌보지만 풀을 뽑고 물을 주는 등 전반적인 일들은 주로 서둔가드닝밸리 회원들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이다.

(3) 주요활동

동네 사람들에게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여 흙을 밟고 허브나 채소 등을 가꾸는 경험을 하도록 제안하는 판을 벌리는 일은 서둔가드닝밸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올해는 사람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 컨테이너 유리 온실에 책을 갖다 놓기도 했는데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작물들이 한창 나오는 시기에는 팜파티를 개최하는데 올해도 조만간 열 생각이다. 텃밭 주인과 가족들, 그들의 지인들 등 주민들이 참여한다. 허브의 경우, 김현미라는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데 키운 작물들을 활용한 요리법 등을 공유하고 직접 함께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서둔가드닝밸리 옆에는 하나린유치원이 인접해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드닝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다. 토끼나 병아리를 키워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관리 등이 문제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희자는 원예치료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한 개인의 열정만으로 마을 사업을 지속할 순 없는 노릇이다. 마을르네상스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적으로 해마다 자부담의 비율이 5%씩 높아져 올해 98만원의 자부담을 져야 하고 함께 일할 주민 동료들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가드닝밸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과 이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희자는 최근 서둔동에 위치한 농생대의 문화적 변화에 주민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하고 경기도 따복마을 사업을 통해 자립의 활로를 찾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하여 이제는 후임자를 정해서 넘겨 줄 계획도 세워보려고 한다. 지금 하는 일들이 많아 그런 것도 있지만 동네 일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조직이 정체하고 썩는다고 말한다.

(4) 시사점

동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전까지 이희자는 양가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부양해왔다. 어쩔 수 없이 미뤄두었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희구는 열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개인 이희자의 삶에서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었던 ‘노인’이 마을사업에서 우선 순위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희자는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엄마들이 돈벌러 나가지 봉사를 하지 않는다. 피약벌에서 물주고 풀뽑고, 교육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등등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텃밭 주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빼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안하려고 하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이희자를 비롯하여 몇몇의 주도적인 참여자들은 철저하게 자발적 선의로 자신들의 시간과 노동을 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서둔가드닝밸리의 의미가 포착된다. 마을르네상스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 부분의 중요성은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향을 찾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올해 원예치료를 배운 동기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접목하기 위해. 구세군 장애인학교에서는 연락이 온다. 거기에 텃밭을 조금 쳤다. 원예치료를 깊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 때문에 토끼, 병아리 등을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돌보는 일 등 현실적으로 일이 많아 하지 못하고 원예로 돌린 것이다.

올해 따복마을 지원해서 선정되었다. 공간 활용 영역으로. 일자리 창출해 볼 생각을 했다. 그게 안 되면 여기 온실에서라도 소득이 있는 것을 해서 하다못해 자부담이라도 해결해 볼 생각이다.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해 갈 생각이다. 부녀회, 이 일, 저 일 적 정선에서 회원들이 잘 끌고 나가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해줘야지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겠나. 그 여건을 만들어 주면 활성화가 계속 될 거라는 차원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교통비, 기름 값 정도는 나오게. 그래야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나도 힘들지 않고, 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남겨서 하는 거 말고. 자부담 해결할 수 있고 회비 해결할 수 있고 추석 명절 때 만원 짜리 김이라도 돌려 가질 수 있고 더 잘 되면 차타고 워크숍으로 일 년에 어디 한번 가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민성’을 지닌 주민의 의지나 동기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좌우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11)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²⁸⁾

(1) 개요

행궁동은 수원화성이 감싸고 있는 마을로 12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정동이다. 수원화성은 1970년대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화성안과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이 화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거의 등한시 한 채 화성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쪽으로만 향하다보니 성안 마을의 생활환경은 자연스럽게 남루하

28) 면담자: 노영란(대표), 박호철(총무)은 행궁동 주민으로 살면서 마을의 여러 현안에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살 수 있을것인가가 이들의 고민이다.

고 초라해 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 수원 상권의 중심이었던 팔달문 주변 상권도 이미 수원의 신생 상권으로 이동한지 오래이다 보니 수원화성 안과 밖의 주변마을은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한 채 낙후된 구도심이 되어 버렸다.

수원시가 마을문화와 구상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20년 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고갈된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퍼포먼스인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행궁동에 유치하면서 행궁동 내의 두 개의 법정동인 신평장안동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도로가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해 새로이 보수되었고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정비 사업 등 마을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마을에는 공방과 카페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페스티벌 직전 6개 정도이던 공간이 현재는 50여개 정도로 늘어나 있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많은 관람객이 마을을 찾았기에 어느 정도 영업이 됐지만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은 예전의 모습처럼 사람이 찾지 않는 조용한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의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다고해서 갑자기 유동인구가 늘어날 리가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갑자기 늘어난 공방과 카페들의 일명 버티기가 절실해 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함께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기감과 필요성이 생겼고 현재의 대표와 총무를 중심으로 건강한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임을 공방과 카페 등 공간운영자들에게 제안해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13년 11월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라는 구심점이 생기게 된다.

(2) 운영 현황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끝나고 그나마 간간이 찾던 이들 조차도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찾는 이가 없으니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아 하나가 모두의 걱정이고 푸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사를 열고 홍보해 사람들이 찾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미리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기획해 한지 등을 만들어 거리를 밝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사람들이 행궁동을 찾아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보기도 했던 것이다. 공간들의 운영이 워낙 어려우니 공간을 1년 유지한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웬지 대견한 일이 되었다. 서로 1년만 버티자고 위로하고 지지하며 버티나갔고, 오픈하고 1년을 잘 버틴 공간에 모여 축하도 해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하면서 ‘버티기’에 대한 의미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014년 봄, 차 없는 거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들과 공방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 마켓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마을 중심부쯤에 위치한 신평지공원에서 그렇게 작은 마켓을 시작했다. 동네의 공방들과 아트숍 등이 참여했고 동네청년들의 밴드인

‘눅눅한 밴드’가 거리공연으로 분위기를 상승시켜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마켓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되어 8개월간 지속했다.



〈그림 3-14〉 생태교통마을 조형물 및 마켓 행사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http://www.maeulcenter.or.kr/>

거리마켓을 진행한 2014년 이후 부터는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부의 요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는 애당초 사업을 위해 결성된 모임도 아니고 그럴만한 예산도 조직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마침 마을에 새로 조성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면서 회원들 간에 결론 없는 토론이 지속되고 급기야 일부 회원들이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때 탈퇴한 회원들은 별도로 자신들이 공방 앞에서 거리마켓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이 위치한 구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이 나누어 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의 시작이 각각의 주체를 키워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현재 행궁동에는 행궁골목장, 신평로골목장터, 어흥마켓 등 3개의 거리마켓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다. 각각의 마켓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생태교통마을문화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3) 특징 및 시사점

행궁동은 마을만들기가 집중되고 생태교통마을페스티벌 등이 추진되면서 행정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정의 역할과 힘이 커졌고 지금도 행정을 중심으로 마을의 일들이 계획되고 처리된다.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토박이나 오랫동안

동안 살아왔던 기존 주민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행궁동에는 많은 문화단체 또는 예술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공간들 중 일부는 그동안 많은 지원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그러다 보니 단체 간의 알력이 생기거나 오히려 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행궁동에는 많은 문화단체, 공간, 모임 등이 생겨났지만 왠지 예전처럼 재미는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모두 사업을 하는 주체들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을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다.

12) 다울공동체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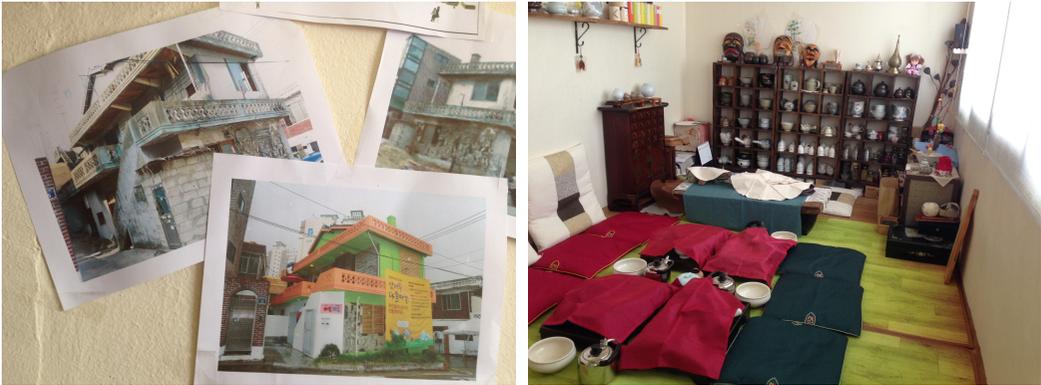
(1) 개요

다울공동체는 동네의 빈집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재개발 지정으로 발생하는 여러 도시적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마을주체이다. 2011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 송은정은 인계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수원문화원, 인계동 주민센터 등에서 공예강좌 강사로 활동해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주체로 등장한 셈이다. 2010년 커뮤니티 아트 영역의 문제작인 ‘인계시장’에서 추진한 나혜석 거리 플라마켓에 참여했던 경험이 인상적으로 남아있었던 그녀는 마을사업의 계획을 나혜석 거리 중심으로 그려보고자 하였으나 지역의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요구받으면서 원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주거지역으로 대상을 옮기게 되었다.

인계 파밀리에 아파트와 남문 사이의 이곳은 팔달9주택재개발지역으로 아직 재개발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많은 곳들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수가 늘어나면서 남아있는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곳이다. 위생상의 문제와 더불어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노후 주택은 동네의 가장 큰 문제이다. 마을르네상스 정책에서 마을사업의 대상지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곳들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하게 빈집 중 한 곳을 무상으로 대여 받게 되었고 이곳이 마을 거점이 되어 교육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60대 이상의 노인 거주비율이 높으면서도 영유아와 그들의 젊은 부모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마을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29) 다함께 한울타리라는 의미, 면담자 : 송은정(다울공동체 대표)



〈그림 3-15〉 다울공동체 공간의 변화 사진과 내부 모습

(2) 과정 및 운영현황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시간을 봉사하는 조건이 있다.³⁰⁾ 이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마을 행정을 가깝게 접하게 되었고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행정 이슈들을 접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마을만들기 사업 이전에 주민센터 사업, 체육진흥회 자전거 교육활동 등으로 교육된 사람들이 동아리로 연계되고 이게 더 확장되어 마을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기반이 된 셈이다. 주민센터가 주도했으나 당시 동장이나 팀장이 문화 분야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한 것이라고 한다. 다울공동체 공간의 원 주인은 투자 목적으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재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이유가 없었던 터다. 다행히 주인과 얘길 잘 해서 무상으로 받은 것인데 폐가였던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지원금인 4천만원의 많은 부분을 폐기물 버리고 치우는데 소진할 정도였다.

공간은 안전상의 문제로 공간을 완전하게 트기 어렵고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1, 2층 공간을 별도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일반 주민 외에 청소년들의 참여도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30)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④ 위원은 매월 8시간 이상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주요활동

첫해는 공간조성이 주요 과제였고 그 이후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올해는 동네를 기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쓰레기와 같은 골목 문제도 포함된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재개발 사업의 개시로 이주 계획이 12월부터 이뤄질 예정이고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옛 기억, 동네의 모습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맞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동네는 수여선이 지났던 곳으로 수원의 근대적 장소도 포함되어 있어 다울 공동체의 기록 작업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다울공동체의 올해 주요 사업의 다른 한 가지는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이다. 2013년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1억을 지원받았는데 그 때 추진했던 동네 올레길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보인다. 동네의 주요 장소들을 거점으로 동네를 투어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거점마다 지닌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역사, 벽화, 문제해결 장소, 주민센터, 다울공동체, 작가 레지던시 공간 등 10여 곳의 장소를 정하였는데 다 돌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마을해설사 교육의 시작은 12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는데 5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만족도가 높다고 송은정은 말한다.

다울공동체 1층 마당에는 EM기계가 있다. EM용액을 만들어 나누는 일도 다울공동체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활동도 8회 정도 이뤄지고 매주 청소년 봉사단, 농고학생, 수원여고 학생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동네 안에 빈집이 많다는 점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 시도했었던 작가 레지던시 사업을 보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레지던시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예술가가 동네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인식이 생겨버렸다고 한다. 목요일이라는 도예공동체, 인도레 둘 다 그러하다. 나름 작가들은 열심히 하지만 기대한 만큼 주민과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였다. 송은정은 작가들의 작업이 좀 더 쉽게 주민들에게 이해되고 교류되길 바라는데 반해 현재 인계동 작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일레로 작가들이 작업한 D라인이라는 프로젝트도 작가 주도의 작업의 의미는 있지만 많은 주민들과 공유되고 함께 하는 과정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도레의 경우도 해당 건물이 수원시 소유이고 마침 인계동에 있으니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수도 등의 설비 환경이 열악한 인도레의 기반 환경을 보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레지던시로 제안하였지만 기존 작가들의 생각과 상충되었다는 일 등은 이후 다울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4) 특징과 시사점

빠른 시일 안에 동네가 혈된다든 점에서 다른 사례와 차이가 있다. 삶의 지속성이라든가 활동의 연계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다울공동체는 예정된 혈림으로 인해 더욱 긴박해진,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런 긴박함에 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평범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왜 이 구역에서 마을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인상도 없지 않지만 최소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고민되어야 할 다른 결의 방향이나 동네의 환경, 이슈를 던져준 의미가 있다.

“4,5 년 사이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재개발이 되는 것인데 아파트 보다는 재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보상받은 돈으로 입주는 불가능하니 그럴 바에는 재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재개발 취소를 할 수 없는 단계라 불가능하다. 이곳의 상황이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이번 달 안에 하는데 공패가 안 전문제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되었다. 주인들은 그냥 버려두는 것인데 합판이라도 막아야 하는 일이 우리 과제인 것이다. 거기에도 찬반이 있다. 사유재산인데 왜 거기다 돈을 쓰나라는 생각이 있다. 저도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중1때 초등 후배들한테 우리 딸아이가 집단 구타 당했다. 아파트 후문이고 통학로다. 여기가 유사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쌓이는 게 두 번째 문제로 등장하는 일이다. 그런저런 문제들이 다 재개발을 이유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다. 그나마 마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지역인데 왜 마을사업을 거기서 하느냐. 근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을 사업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송은정이 문화예술인이라는 점도 다른 사례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부분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이 드물고 이러한 점은 마을 사업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나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도 인상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동네와 관련된 예술적 이슈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거나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그런 면에서 숙련도가 높지 않은 점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예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과 이슈가 다울공동체에서도 보인다. 행정체계와의 관계, 5년차 이후 자립의 문제, 주민활동가들의 활동비 지급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모두 중요하게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 중 행정체계와의 관계는 이후 마을사업이 말 그대로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이슈라고 보인

다. 다울공동체도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만든 셈이고 현재까지도 주민센터 체계 안에 있다 보니 자발성, 자율성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동장님, 팀장님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느낀다. 이걸 만든 것은 당시 팀장님과 담당자이다. 같이 알아보는 등 열의가 있었다. 귀찮아하지 않았다.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이전 사람의 것이 아닌 새로운 실적, 평가 요구한다. 예전의 것에서 더 발전하는 것인데 이전의 것을 부정하는 태도들이 있다. 자원봉사와 마을만들기는 특히 평가는 맞지 않는데 그것만을 원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이 없고 오후에는 미디어센터로 가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들은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 지적은 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주지 않고 요구만 하는 상황이다.”

13) (사)경기인형극진흥회³¹⁾

(1) 개요

(사)경기인형극진흥회는 2013년 경기도의 인형극 발전과 경기인형극제를 전담하기 위한 민간주체로서 출범하였다. 이전에는 민예총 등의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개별 예술가들이 수원을 거점으로 공연이나 교육을 해왔는데 세류동, 권선동이라는 특정 동네와 접촉한 것은 2000년 즈음으로 권선시장 내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서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당시 민예총과 같이 작업하였는데 기대한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지역에 필요한 일들 가운데 문화예술의 역할을 구체화한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들이 시기적으로 늘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네 아이들의 낡은 자전거를 리폼하는 바이크 팩토리 프로젝트를 시도한 이후 작년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의 주요 화제인 ‘인생나눔 극단’ 프로젝트를 통해 세류동의 노인들을 만나가고 있다. 경기인형극진흥회는 경기인형극제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 이에 못지않게 인형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2015년 인생나눔 극단과 같은 활동은 이러한 고민의 일환이며 나눔 인형을 만들고 공유하는 일, 그걸 가지고 동네의 이슈와 연결하여 캠페인으로 연결한 것과 함께 동네의 인형극단을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31) 면담자 : 김강식((사)경기인형극진흥회 상임이사)

(2) 과정 및 운영현황

경기인형극진흥회의 사무실은 곡반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류동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만 동네의 주민이나 주체로서의 위상이기 보다 수원을 거점삼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더 가깝다. 사무국은 축제를 중심으로 3, 4명의 실무자들이 꾸려졌다가 축제가 끝나면 최소의 인원만으로 유지되는 형태이다.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대부분이 유사한 상황이지만 축제 외에 동네에 천착하여 시간을 들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부족 등은 고질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임을 고백한다.

지난 2015년에 진행된 인생나눔 극단은 수원문화재단의 우리동네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원래 계획된 일은 아니었고 공모가 있다고 하여 급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렇다 할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세류동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원시 평균 연령대보다도 더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노인들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한 두 분 만나다 보니까 관심대상이 바뀐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모이는 거 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인형극 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해보자는 제안을 부담스러워 하여 목표는 20명이었는데 16-7명 모였다가 활동 내용을 알고 2명만 남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그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인형도 만들면서 진행하니까 점차 늘어나 10명이 된 것이다. 할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재미있어 작가를 붙여 극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세류동의 캐릭터인 벼들이와 가늘이가 있고 참여하는 할머니들의 분신이 캐릭터가 되어 인형극이 이뤄졌다.



〈그림 3-16〉 경기인형극진흥회 인생나눔 인형극단

(3) 주요활동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경기인형극제는 경기인형극진흥회의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올해에도 7월 14일부터 15일간 11개 작품이 49회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제 인형극제인 본 행사의 초반에는 해외 초청작품이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의 것에 그쳤지만 현재는 러시아, 스페인 등 참여 국가들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유료 객석점유율도 80%로 높아져 외적, 내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인형극제를 추진하는 일 외에는 인형극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 인형극을 아이들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이다. 인생나눔 극단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 분들에게 인형과 인형극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5학년 실과 수업에서 인형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때 만든 인형을 가지고 할머니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인형극단을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인생나눔 극단만 하더라도 공연의 줄거리를 참여하는 할머니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 인형만들기, 인형옷 제작, 공연 연습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스토리텔링은 극본 작업을 위해 스토리텔링 작가와 함께 이뤄지고 인형제작 역시 틀을 뜨고 표정을 그리기까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야 가능하다. 인형은 디자인 후 찰흙으로 만들고, 굳으면 석고로 떠 흙을 파내고 종이로 7,8번 붙이기를 반복한 후 그 위에 칠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 할머니들이 한다. 인형 옷은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자투리 천을 가져와서 직접 제작하는데 100년 된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솜씨를 발휘하는 등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활동은 주로 지역재활복지센터인 나눔의집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회 진행되었다. 작년 12월에 공연하면서 공식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할머니들이 1만원씩 내어 계를 하면서 자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0명이 모여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올해는 동네에서 1, 2기 인생나눔 극단, 아이들 동아리, 전문극단이 같이 참여하여 교류하는 인생나눔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4) 특징과 시사점

(사)경기인형극진흥회의 활동을 마을문화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그렇듯이 자신들의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

로그그램을 운영한 것이라 해당 동네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 동네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소재들이 활동의 주제나 소재로 공유되고 있지만 마을문화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동네에서의 삶, 그 안에서의 특징적인 관계, 이슈와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기획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과정이 그들의 작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세류동의 마을문화나 커뮤니티에 관심을 두고 시작된 활동이 아니라 인형극 자체와 인형극이 어른들에게도 유의미한 예술장르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유하지 않고 독거하는 보통 노인들의 삶이나 낙후한 동네의 아이들이 처한 보통의 위험이나 거친 관계들을 보듬는다는 의미는 이 단체의 활동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예술단체가 주민과 만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마을문화라는 관점에서 이 단체의 활동에 주목할 지점은 인생나눔 극단이 12월에 공연을 한 후 극단의 활동은 멈췄지만 계를 통해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할머니 한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함께 그 할머니를 추모하고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경험들이 인생나눔 극단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동네에서의 어르신들의 삶을 인형극 속에 녹여 내며 인형극 활동을 계속해 간다면 단순한 예술적 실천이 마을문화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4) 매탄4동 마을만들기협의회³²⁾

(1) 개요

수원시의 발의로 동 단위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이 제안된 후 동별로 구성이 된 시점이 2013년 1월 즈음인데 매탄4동의 경우, 사업의 취지를 고민하고 적절한 주민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해 7, 8월 경에 구성이 완료되었다. 류명화는 특히 당시 동장이었던 이병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데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적절한 주민들이 누가 있을지 발로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요구하는 행정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동네 현실과 과정을 중시하여 동네의 호흡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주민의 자발적 발의가 아닌 한계가 있지만 행정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구성된 주민들도 마을만

32) 면담자: 류명화(매탄4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 수원여성회를 통해 풀뿌리 여성운동을 해왔던 그녀는 수원시주민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에의 실천을 위해 마을만들기 참여하게 되었다.

들기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벼룩시장 등 가볍지만 쉽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과정 및 운영 현황

2013년-2015년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이후 산드래미 마을의 수호신처럼 서있는 450년 된 느티나무를 모티브로 하여 도시민의 치유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동네의 모습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 동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사생대회 등을 열었다. 바쁘고 각박한 일상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느림보 우체동을 운영하는가 하면,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016년 특화마을만들기 대회 수상을 통해 주민들로 마을계획단이 구성되었다. 현재는 향토회와 함께 이전의 활동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특화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발표하고 계획서 심사과정과 그의 결과로 마을계획단이 꾸려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 큰 성과이다. 마을계획단의 사업 캐치 프레이즈인 ‘걷고 놀고 배우는 산드래미’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마을활동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바 향후 걸으면 살기에 괜찮은 동네 매탄4동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다.³³⁾

(3) 주요 활동

- 벼룩시장 :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된 첫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벼룩시장은 주민들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과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주기도 하다. 동네 썸지공원에서 진행되는데 행사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주민들은 참여와 일부 역할 분담을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의 주도성이 커지고 현재는 대부분 주민들이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 100인 토론회 : 특화마을 선정 이후 공공재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마을계획단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외에 더 많은 동네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특화마을 계획의 전반적인 브리핑, 동네 이슈(도로 인접성으로 인한 안전 문제, 상권이 약해짐에 따라 기존 상가들

33)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270m 정도의 도로로 차량이 15km이하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창고로 이용되면서 침체가 가속화 되는 것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들로 거리축제, 벼룩시장 등을 담고 있다.

- 마을신문 제작 : 작년에 매탄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마을신문 청소년판 제작 과정이 좋았다. 동네 4곳(생협매장, 청년카페, 슈퍼마켓, 분식집)에 가서 주인 인터뷰하고 기사로 정리해서 신는 방법이 서로에게 재이었고 의미도 있는 일로 평가되어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마을의 활동이 학교 활동과 연계되는 경험도 좋았다.



〈그림 3-17〉 매탄4동주마음만들기협의회 활동

자료 : 마을르네상스센터 <http://www.maeulcenter.or.kr/>

(4) 특징과 시사점

수원시의 정책적 발의를 통해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주민주체가 발굴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 주민 가운데서 발화된 것이 아닌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될수록 동원된 주민의 자발성은 동력이 떨어져 본래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늘 발생한다. 사업의 방향은 오랫동안 시민운동 영역에서 활동해 온 류명화의 역량으로 동네의 이슈를 적절하게 발굴하고 사업의 의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성공적인 과정을 밟아 온 듯하다. 내용적으로도 동네의 오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동네라는 관계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마을신문 등을 통해 교류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고한 점, 벼룩시장으로 주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활동은 올해 시행된 100인 토론회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입장이 민감하게 공존하는 동네라는 거점이자 사업대상지는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공유되고 수렴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마련이다. 특히 올해 마을계획단을 통해 특화마을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더욱 그러한데 류명

화는 100인 토론회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를 문화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것이다.

3. 시사점

1) 긍정적 측면

(1) 주체 발굴 계기

주민의 참여를 강조해 온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 단체협의회와 관련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이나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일에 관여해 온 경험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유리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들의 역할이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훨씬 참여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둔가드닝밸리의 이희자, 인계동 다울공동체의 송은정과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가 내세우는 ‘마을’, ‘관계’, ‘공동체’와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탄4동의 류명화, 오목천동 푸른언덕좋은사람들의 이선웅을 꼽을 수 있다.

(2) 문화 활동 양식의 확대

마을 문화를 일구기 위해 마을 주체들은 여러 가지 기획과 활동을 펼쳐왔다. 높은 수준의 문화, 문화적 태도는 아니더라도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마을 문화 활동이 친근하고 동네 모두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벼룩시장, 취미강좌개설, 벽화, 마을신문제작, 공연, 동아리 활동 등은 생활 예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데 용이한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 주체로 활동하는 이들 외에 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일반적인 문화,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었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양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3) 정책의 통합적 구현과 미시적인 문화 공간의 창출

많은 문화정책, 교육정책들이 공공문화기반시설이나 익숙한 공공체계에서 실행되다보니 물리적으로 좀 더 사람들의 삶에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중요한

이슈이고 과제이다. 마을 만들기는 국가단위나 지자체 정책 단위에서 시행되는 분야별 정책과는 달리 지역 거점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어 내용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것을 포함한다. 즉, 문화, 교육, 복지과 같은 개별 정책이 마을 사업 안에서 모두 들어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점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정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동네 안에 조성된 작은 문화공간을 들 수 있다.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발견해 낼 수 없는 빈 장소, 유휴 공간들이 생활 거점 안에서 드러나고 문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기능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2) 부정적 측면

(1) 낮은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의 확대 재생산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서 문화 예술의 역할,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역 현장에서 문화 예술이 다루지고 구현되는 방식은 매우 근대적이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문화예술 수준을 말하는 것은 장르 예술에서의 기량이나 기술적 수준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저렴하고 조악하게 이뤄진 벽화들은 마을 문화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보기 좋아 졌다’라고 말하지만 그저 화장으로 가리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낙후하다는 것을 잠시 윤색할 뿐 본질적으로 지저분함과 낙후함 이면의 어떤 이야기도 담아내지 못한다. 이는 상징적인 예이지만 마을문화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마을의 어떤 점을 문제라고 선별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그리는 마을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다. 마을만들기의 주요 현상이 되고 있는 오래된 동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저분함과 낙후되었다는 입장이나 시선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화적 활동은 현재의 삶에서 발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마치 가리고 칠해서 매끈하게 하는 것으로 와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2) 문화예술의 도구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적 결과물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은 마을문화에서 공동체성이 얼마나 내면화 되었는가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많은 사례에서 문화라는 이름을 걸고 행해지는 활

동들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목격된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 그로 인해 문화예술을 다분히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은 커뮤니티에 대한 예술 인문적 관심과 지향을 가지고 실천하는 좋은 문화 예술인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거리를 두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원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려 하고 자신의 예술 활동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다. 하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결합해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예술가들을 공동체의 일원이자 마을활동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협력하기보다 사업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고용되거나 섭외된 사람 즉 사업의 도구로서 밖에 인식하지 않는 탓이 크다.

(3) 주민 주체의 질적 자발성 저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적 의지가 강한 점은 수원시 전역, 광범위하게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게 했지만 수원시의 행정력을 통해 정책전달체계를 가동했다는 점은 주민들이 질적인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동장과 동의 담당 팀장 등 동 단위 행정 체계 안에서 섭외, 발굴된 주민들은 일사 분란하게 움직여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을 만들기가 왜 필요한지, 참여하고 있는 주민 개개인들에게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지,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이슈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거듭하고, 공부하며 이웃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1.마을만들기협의회를 구성하여 2.기획서를 작성한다.’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 마을 만들기의 방식은 매우 익숙한 전달체계이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자기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주민은 자기가 스스로나 이웃을 동원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마을 만들기가 지향하는 토건, 개발에 대한 근대성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며 주민이 시민이 되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질적으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다.

제2절 마을문화활동 지원 기관

1. 인터뷰 개요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이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센터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아트 사업이다.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두 단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수원시 혹은 관계기관의 정책 및 인식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박상철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으며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박지원 예술지원팀 대리과 김진희 창작지원팀 대리와 인터뷰를 했다. 센터장은 부임한지 1년 정도인 반면 박상철 사무국장은 마을르네상스 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센터 현황과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예술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술지원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박지원 대리는 약 1달전 예술지원팀으로 발령받아 이 사업을 담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담당해 왔던 김진희 대리도 함께 인터뷰를 했다.

〈표 3-3〉 마을문화활동 지원기관 인터뷰 현황

기 관	일 시	면담자
마을르네상스센터	2016. 5. 19(목)	박상철(사무국장)
수원문화재단	2016. 6. 1(수)	박지원(예술지원팀 대리) 김진희(창작지원팀 대리)

2.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

1) 마을르네상스센터

(1) 개요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는 개발과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시민주도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기위해 2011년 수원시가 설립했다. 시민공동체운동을 표방하는 수원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받으며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수원마을르네상스는 옛 우리 마을공동체의 문화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갖고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나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회복과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 마을의 개념과 활동의 지속성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우리의 옛 전통적인 촌락에서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고 동네의 대소사도 함께 챙기며 마을의 현안 문제들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하는 공동체이다. 마을만들기는 좋은 활동주체들이 있어 주민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접촉면이 넓어져 자연스러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 르네상스센터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삶의 거점을 기준으로 근거리에서 형성된 공간적 개념에 가깝다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정단위가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위 관변단체가 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봉사의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원하고 좋아해서 동네를 가꾸는 활동으로 참여하시거나 때로는 사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은 작은 도시이다. 그렇다 보니 마을 안에서 행정의 모든 분야가 맞물리게 되어 있다. 환경, 복지, 경제, 문화 같은 여러 분야들이 마을 안에서 다 맞물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마을지향 행정을 추진하기도 한다.

마을르네상스센터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동을 시작한 공동체들 중에서도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마을 주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는 일종의 활동가 개념의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체들이 존재하는 마을은 활동을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은 공모사업의 지원을 통해서만 활동이 이루어진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사업에서는 한 마을이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울전동 밤밭축제, 정자동 달빛축제, 구운동 군들청룡축제, 통소바위축제, 태장동 국화축제 등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축제들이다. 올해의 경우 이들 축제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르네상스센터의 입장은 이제 이정도 성장을 했으면 자체적인 운영을 도모 하던가 문화재단 같은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3) 마을만들기와 예술

예술인들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궁동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가 가장 많다. 아마도 행궁동은 벽화마을을 통해 주목을 받고 2013년 생태교통페스티벌을 거치며 많은 인적 자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다. 예술가들의 작업실인 행궁동레지던시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많은 공방들과 카페 형태의 공간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그들의 인건비나 작품비를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없다. 강사비도 전체 예산에서 14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마을에서는 전문가를 불러오기를 원하지만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가급적 지역과 마을 안에서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기타 교육을 한다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타를 통해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그러한 모임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모임으로 나가게 돕는 것이 르네상스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4)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특성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 부르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같은 단체들은 봉사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행정 의존적이다. 회의문서도 주로 행정에서 만들어 진행하다보니 행정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직접 해야 한다는 상황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문화단체나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만들기를 통한 내용이나 결과물이 좋은 편이다. 자체적으로 운영도 잘 하고 결과보고서도 잘 만들어 제출한다.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은 보통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단체의 활동비를 생각하고 사업에 응모하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사업인지 단체를 위한 보조사업인지가 애매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처럼 지원을 통해 설립되고 활동을 시작한 예술 활동 단체들도 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팔달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는 모두 있는데, 이런 활동을 마을 만들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지역기반의 단체이기는 하나 활동양식이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가깝고 마을단위의 활동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이들의 활동을 매개로 부모들이 만나고 이 부모들의 네트워크 모임이 마을 활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5) 이슈 및 시사점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의 문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가 공동체내에 흐르는 어떤 힘이라기보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문화나 예술이 상호 공감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 그 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문화는 어떤 것의 수단이라기보다 우리 삶 전체의 목적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며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곧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원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같은 경우 공동체 지향의 프로젝트이다 보니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문화재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 모두 서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각 기관 간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마을르네상스가 주목해야 하는 마을이라는 것은 주거, 교육, 복지, 경제, 문화, 정치 등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집합된 곳이기 때문에 수원문화재단 외에도 미디어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기후변화체험관 등과 같은 공공영역과의 협력의 접점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원문화재단

(1) 개요

수원문화재단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³⁴⁾으로 한다.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중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 예술 활동이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어왔다.³⁵⁾

34) <http://www.swcf.or.kr/>

35) 수원문화재단과의 인터뷰는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에 한하고 있다.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수원문화재단의 예술정책에서 동네, 마을의 가치를 담아내 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한국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업의 하나로 기초 지역마다 나름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어 경기도 내의 다른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내용이 각기 다른데 수원문화재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펼쳐내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동네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사업공고가 이뤄지고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다.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 프로젝트(지역 공동체 예술)
- 동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갤러리카페, 북카페,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 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사업 우대

(2)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운영 과정 및 현황

이 사업은 수원문화재단의 출범 초기부터 해왔는데 의미의 중요성과는 달리 지역 현장에서 이 사업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재공고까지 했지만 준비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에 비해 선정할만한 적절한 사업이 없는 현실인데 지역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이해하는 마을의 의미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이를 테면 본래 해오던 사업들의 연장선에서 주민을 관람객을 동원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애초 지역의 이슈에 대해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 실험, 도전과 같은 적극적인 일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지역 예술 주체들에게 이 문제를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6년도 공모에는 16개 팀이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 서둔동의 주민 사진교육(송태화 작가)이나 행궁동 더페이퍼의 성안동 골목박물관 설치 계획, 세류동 인생나눔 인형극단의 활동 등이 동네의 이슈를 반영하면서 예술가의 역할을 살핀 프로젝트로 꼽았다. 내용

적으로 교육의 형태가 많다. 전년도 사례에서는 지구별 살롱(다문화도서관), 칠보문화 놀이터, 칠보마을신문, 행궁동 다담, 연무동 판화가게 등이 인상에 남는 활동을 하였다. 칠보의 공동체 활동의 경우 공동체의 내적인 역량이 커지면서 더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칠보는 예술활동과 마을의 활동을 분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에서 문화, 예술의 정체성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기보다 마을활동의 한 부분이나 수단으로 여긴다. 그들의 활동에서 예술가의 위상이나 존재가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강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슈 및 시사점

□ 프로젝트의 보완과 대안

예술가들은 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동네’라는 것에 낯설어 했고 주민들은 예술가들을 만나는 루트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년 전에 사업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아트에 관한 교육인 ‘피어라 커뮤니티’도 해봤지만 아직도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예를 들어 사업신청서에 기술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된 채 들어오는 기획들이 많다.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빠져 있으니 사업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예술 주체들이 지역 사업에서 흔하게 하는 벽화작업의 경우, 벽화가 어떤 맥락에서 요구되고 실행되는지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데 매번 주문제작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과정의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지난 해 예술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지역 리서치를 수행하는 과제를 기획 사업인 서수원 연구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시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지역 예술가 혹은 단체들은 공동체 기반의 예술이 주민과 같이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인력과 같은 기반이 받쳐주지 못하는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커뮤니티 지향의 프로젝트나 이와 관련된 예술 정책의 경향들이 예술가한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예술가들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며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 반면에 주민의 입장은 종종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 무조건 주민들이 예술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작업을 받아들여줄 수 도 없다. 그래서 주민과 예술가, 다양한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자 혹은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이 아닌 민간 단위에서 여러 욕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경우 가능

한 것들도 있지만 한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기획자의 양성 또한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다. 짧은 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기보다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념을 가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마을문화활동에서 문화예술의 위상

커뮤니티 아트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 주민이나 지역예술가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재단 담당자는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 동네의 의미가 무엇이나 라는 문의가 있어 주민과 함께 한다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작업이라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에 대해 설명을 하면 주민을 동원하라는 것으로 오해했던 사례를 들었다. 예술가가 마을에 들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깊은 사유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고민 없이 일상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니 비슷한 양태만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를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도 수원문화재단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자기만의 것을 찾으려는 예술가들이 있으며 그들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지역과 긴 호흡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에 매우 힘들어한다는 점이다.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한편으로 예술가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면들이 있다. 지금의 재단은 이 사업의 지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한다.

□ 지역 예술가와 지역

‘지역 예술가’라는 개념은 논쟁적이다.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서는 지역 예술가의 범위를 매년 다르게 정하는데 이는 협업하는 경기문화재단의 방침과 관계되어 있다. 대상 범위를 수원시 소재 예술인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정할 때도 있다. 대체로 소재지나 거주지가 수원인 예술인을 지역 예술가로 간주한다. 재단과 같은 중간지원 기관들은 공적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문화적 활동의 수혜가 해당 지역에 남아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지역 예술가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가들이 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그 지역을

활동의 거점으로 삼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큰 소비의 장이 있는 경기권 지역에서는 서울에서의 활동 기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 담당자는 무엇보다도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프로젝트가 숙성되는 과정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로 예술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방식의 예술작업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들 수 있다. 예술가들이 작업과정에 예술을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이나 개입을 허용하면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해 한두 번은 흥미로워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몇 년 전에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현재 미술관 자리에서 진행한 도시농부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반응이 매우 좋았다. 우수사례로 뽑혀 발표도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젝트였는데 정작 본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유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예술가는 회화를 전공했기에 공동체 예술을 스스로에게 맞는 분야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좋은 활동이었지만 지속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동체 예술에 대한 시각이나 지역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 예술가들 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동에서 활동하는 두 예술가를 들 수 있다. 한 작가는 작업실을 두고 지동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가는 지역을 바꿔가겠다 보다는 지동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자 한다. 그 만나는 과정을 다양한 작업을 통해 기록하고 문화적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 작가는 유명해진 지동의 벽화작업을 주도했다. 이 작가는 지동이 낙후되어 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지역이라는 것을 벽화를 통해 변화시키려 한다. 이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 사람들이 치유받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작가의 활동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작업이지만 지역을 보는 시각, 지역에 대한 태도, 지역과 관계맺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의 활동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은 후자의 활동으로 보인다.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관점,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메시지가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공동체 예술에 대해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예술가들이 (지역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예술가들이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 관련 예술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작년에 세류동에서 진행되었던

‘대문을 열어다오’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예술가의 경우도 그러하다. 원래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였지만 세류동에 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동네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문화재단은 지역마다 이야기도 있고 특색도 있는 것을 예술가들이 발견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혹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벽화 작업이다. 천편일률적인 벽화 작업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주민들이 벽화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가들은 보다 다양한 작업들에 대해 고민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예술가들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수행되는 지역이 행궁동이다. 행궁동은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해서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들에 대한 경험이 많고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예술가가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를 담아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 등 활동의 단초를 본인들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재단은 이런 움직임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인위적인 정책이 필요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추동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커뮤니티, 공동체, 주민성 등과 관련된 수원시의 예술정책

올해 초 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의 시·군 협력사업을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에서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변화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에 의욕이 있는 주체나 선정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수원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예술인과 단체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니 규모가 작은 다른 시·군은 더 어려웠다.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자기 고유의 작업을 하기 원한다. 공동체 예술에 대한 요구를 많아지니 내용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수행하다가 그러한 작업이 힘들다고 느끼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네나 커뮤니티를 고민하는 영역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라는 이전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에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적 자원이나 행정적 노력이 구도심과 행궁 주변, 팔달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나마 이 사업을 통해 그 외의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는 수원 안에서 문화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

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신도시의 주민들의 욕구도 담아내는 다양한 틀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크지 않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마을르네상스 사업과의 연계

수원문화재단 부서별 업무에는 ‘시민문화활성화(마을만들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실제 업무에서 (마을르네상스 개념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관되어 수행한 것은 없었다. 마을만들기가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 재단 담당자는 ‘시민문화’ 개념을 공동체 예술 활동과 등치시키면서 마을만들기로 해석하는 오류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시민문화 활성화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문화재단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 정책에서 시민문화예술 또는 생활예술에 대해 강조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주민참여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활동과 연결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마다 다양한 주민주체들과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나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민조직들에 의해 지역축제나 각종 문화행사들이 추진되는데 이러한 마을문화 프로그램에 지역의 예술가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는 못하다. 마을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주민주체를 지원하고 수원문화재단은 예술가 주체를 지원한다. 주민주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예술이 도구화되고, 예술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주민을 동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주민이 중심이 되었을 때 예술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도 같이 협력의 파트너로서 같이 주체가 되어야 주민과 예술가가 같이 협력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의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었을 때도 주민들을 프로젝트에 동원하거나 참여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정도까지 도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두 기관의 사업의 유사해 보이기 그 배경과 지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가 회복하려는 공동체의 이념형은 우리의 옛 전통적인 촌락에서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고 동네의 대소사도 함께 챙기며 마을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며 공동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역공동체이다. 마을활동은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예술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문화예술의 질이나 수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높은 미학적·예술적 질을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 활동과 별개의 것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활동에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반면에 예술지원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은 사업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핵심적이다. 다시 말해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 사업이다. 물론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는 사업명 그대로 ‘예술’만이 아니라 ‘동네’가 같은 비중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동네’는 지리적인 혹은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동체’, ‘커뮤니티’로 봐야한다. 문화재단은 마을과의 결합, 주민과의 교류와 소통,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매우 중요한 지원사업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예술’의 단순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공동체 소통과 교류의 핵심적인 ‘매개’이면서 목적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미학적·예술적 질의 문제를 추구한다. 이러한 높은 질의 추구가 공동체 문화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다만 문화재단의 고민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불분명한 상이며 지원 신청하는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채 ‘아트’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즉 ‘예술’로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예술가와 지역과의 간극이 아직은 넓다는 것이다.

제3절 마을문화활동 실태와 인식

1. 조사설계

이 설문조사는 마을문화활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및 관련 문화활동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와 수원문화재단의 협조를 받아 수행되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단체와 수원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메일 혹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2016년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5부의 유효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단체 및 개인 특성 자료를 포함하여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문화활동 현황,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평가와 인식, 마을문화활동 정책, 활동 단체 및 개인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설문 구성

구 분	내 용
마을문화활동 현황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고려 요인 문화활동 수행의 애로점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양상 및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참여 증진 방안 문화활동 활성화 요인 마을문화활동의 목적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평가와 인식	마을의 범위 마을문화활동의 필요성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체성 인식 수원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판단 마을문화활동 정책에 대한 평가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마을문화활동 관련 만족도
마을문화활동 정책	지역 이슈 마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마을문화활동 지원 방안
단체 및 개인 특성	단체 설립연도, 활동 지역, 성격, 설립계기 (응답자의) 단체 내 직위, 연령, 활동기간, 활동 동기

2.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설문 응답자 중 무응답을 제외한 36명의 단체 내 직위는 대표가 69.4%(25명), 사무국장 등 실무자가 27.8%(10명)이다.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에서는 대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단체 내 직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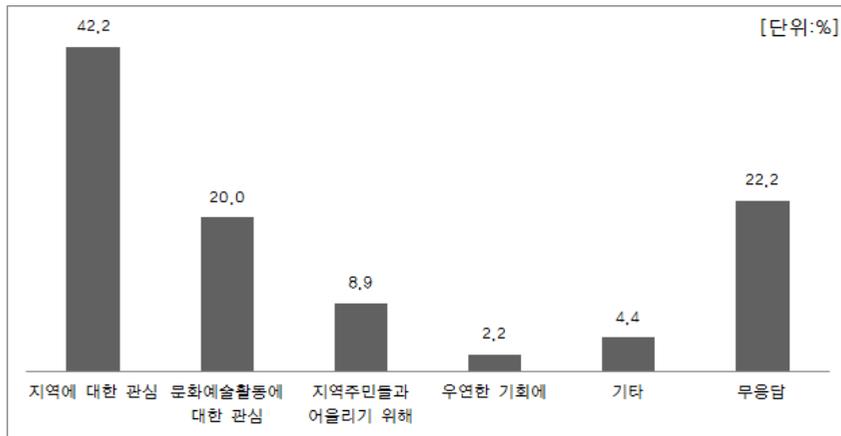
		빈도	백분율
전 체		45	100.0
단체 내 직위	대표	25	55.6
	실무자	10	22.2
	기타	1	2.2
	무응답	9	20.0
성별	남	14	31.1
	여	23	51.1
	무응답	8	17.8
연령	20대	1	2.2
	30대	5	11.1
	40대	13	28.9
	50대	10	22.2
	60대 이상	4	8.9
	무응답	12	26.7
단체 내 활동기간	1년 미만	3	6.7
	1~5년 미만	19	42.2
	5~10년 미만	7	15.6
	10년 이상	2	4.4
	무응답	14	31.1

응답자(무응답 제외 37명)의 성별은 남자가 37.8%(14명), 여자가 62.2%(23명)로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

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9.4%(1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0대가 30.3%(10명), 30대 15.2%(5명), 60대 이상 12.1%(4명), 20대 9.7%(1명) 순이다. 수원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연령층은 40~50대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응답자들(무응답 14명)이 단체 내에서 활동한 기간은 1~5년 미만이 61.3%(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10년 미만으로 활동한 사람이 22.6%(7명), 1년 미만과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각각 9.7%(3명)와 6.5%(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활동 기간은 단체 설립 시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단체 설립시기부터 활동해왔음을 나타내준다.

활동 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마을)에 대한 관심’이 54.3%(1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25.7%(9명),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가 11.4%(4명), ‘우연한 기회에’활동하게 된 경우가 2.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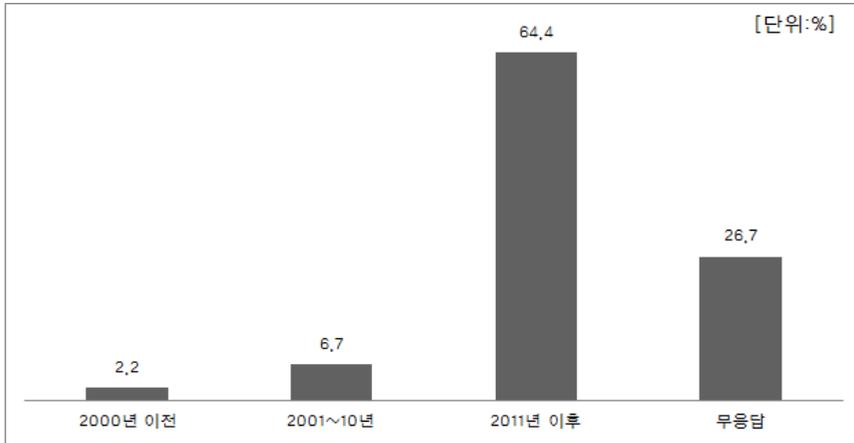


〈그림 3-18〉 활동 동기

2) 단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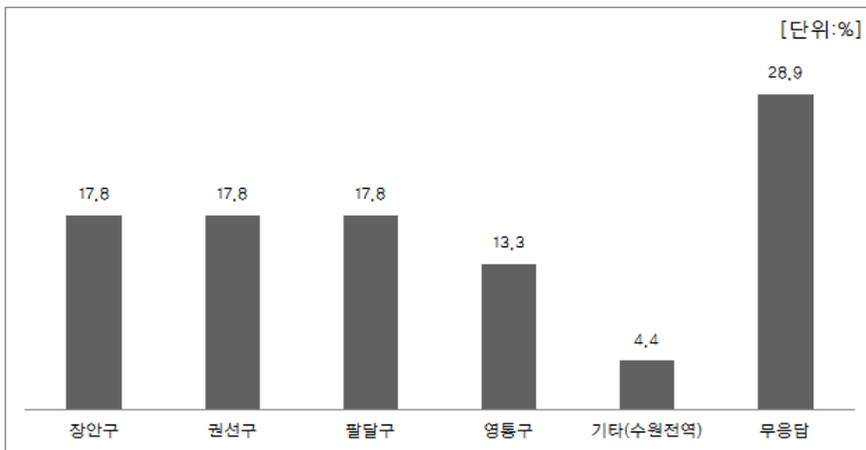
설문 응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2011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는 1개, 2001~10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는 3개에 불과한 반면 2011년 이후 설립된 단체는 29개로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 중 87.9%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마을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설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4개, 2012년에 3개, 2013년에 8개, 2014년에 7개, 2015년 3개, 2016

년에 4개이다. 2011년부터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원시의 마을활동 단체들의 설립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추진에 의해 영향받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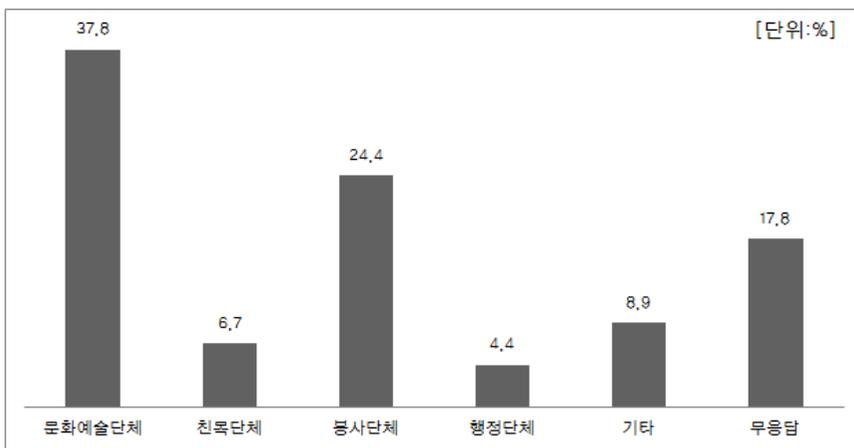
〈그림 3-19〉 설립연도

설문에 응답한 단체들의 활동지역은 장안구 8개, 권선구 8개, 팔달구 8개, 영통구 6개, 기타 2개이다. 마을활동 단체들이 비교적 수원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원의 마을문화활동이 수원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20〉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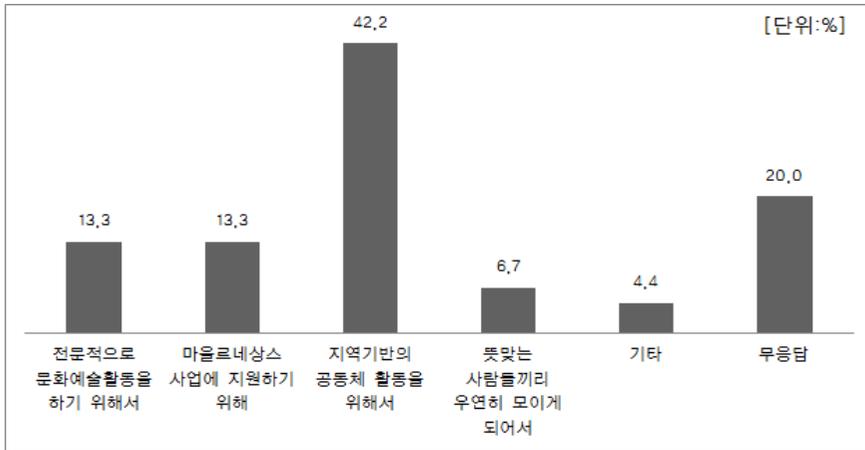
단체 성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45.9%)으로 가장 많고, 봉사단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29.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친목단체라고 답한 경우가 3명, 행정단체 2명 등이 있다. 마을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대다수가 단체의 정체성을 문화예술이나 봉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단체 성격

단체설립 계기는 ‘지역기반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9명(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과 ‘마을 르네상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6명(16.7%)을 차지하고 있다. 단체 설립의 계기가 마을 르네상스 사업 지원이 아닌 지역기반의 공동체 활동이라는 이 응답 결과는 실제 현상과 간극이 보이기에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주의 깊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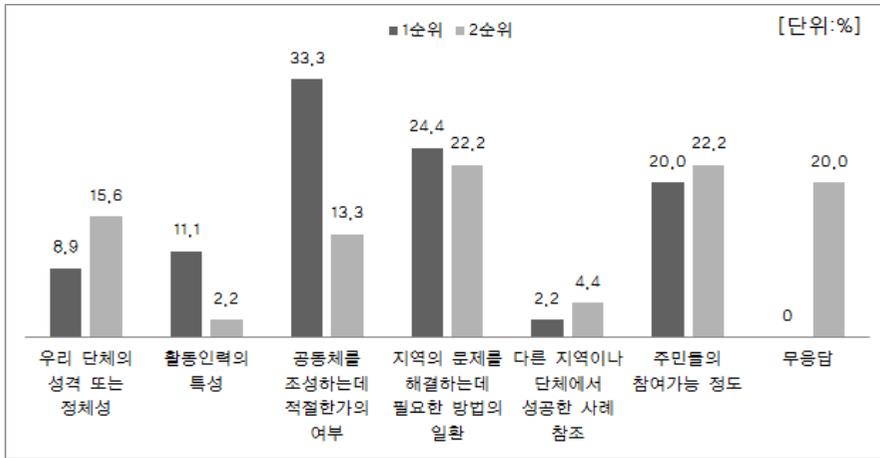
단체 설립의 시기를 보면 마을 르네상스 공모 사업의 영향을 받았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실제 단체 설립의 계기에 대해서 마을 르네상스 사업 지원이라고 매우 적은 수만이 응답하고 있다. 이는 비록 마을 르네상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마을 르네상스 사업은 그러한 욕구를 발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마을 르네상스 사업 지원은 표면적 동기일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와 자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2〉 설립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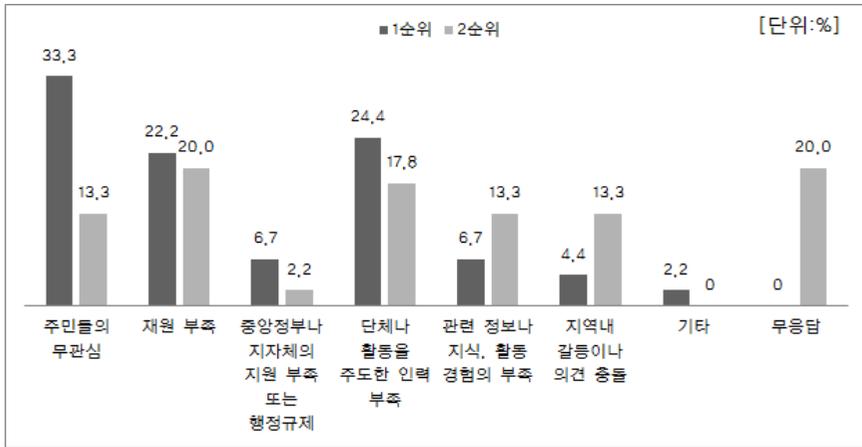
3) 마을문화활동 현황

지역 내 문화 활동을 실천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 응답으로는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적절한가의 여부’가 33.3%(15명)를 차지했고, 이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방법의 일환’이 24.4%(11명), ‘주민들의 참여가능 정도(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20.0%(9명) 순이다. ‘활동인력의 특성’과 ‘우리 단체의 성격 또는 정체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5명과 4명으로 11.1%와 8.9%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이나 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를 참조’했다는 응답은 1명으로 2.2%에 불과하다. 2순위 응답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응답과 ‘주민들의 참여가능 정도’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22.2%(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쳤을 경우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적절한가의 여부’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의 일환’이 공통적으로 21.3%(21명)을 차지하고, ‘주민들의 참여가능 정도’도 19명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화활동 소재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 현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거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기에 좋은 소재나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을문화활동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3〉 문화활동 고려점

이와 같은 지역 내 문화 활동을 수행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33.3%에 해당하는 15명이 1순위로 ‘주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체나 활동을 주도할 인력 부족’과 ‘재원 부족’은 각각 11명과 10명이 응답하여 24.4%와 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 또는 행정규제’와 ‘관련 정보나 지식, 활동 경험의 부족’이 공통적으로 6.7%(3명), ‘지역 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4.4%(2명)를 차지한다. 2순위 응답으로는 ‘재원 부족’이 20.0%(9명), ‘인력 부족’이 17.8%(8명)에 해당하고, 이어 ‘주민들의 무관심’, ‘관련 정보나 지식, 활동 경험의 부족’, ‘지역 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공통적으로 13.3%(6명)를 차지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 또는 행정규제’는 2.2%(1명)에 불과하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했을 경우 ‘주민들의 무관심’이 25.5%로 가장 높고, ‘재원 부족’과 ‘인력 부족’이 공통적으로 21.1%로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마을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무관심하고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재원과 활동 인력 부족 또한 마을활동의 장애물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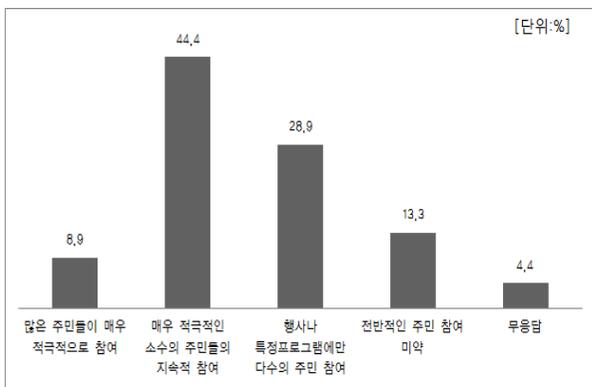
〈그림 3-24〉 문화활동 수행시 애로사항

마을만들기나 지역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양상에 대한 질문에 44.4%(20명)가 ‘매우 적극적인 소수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행사나 특정 프로그램에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다는 응답이 28.9%(13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전반적으로 주민 참여가 미약’하거나 ‘많은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각각 13.3%(6명)과 8.95(4명)이다. 즉, 일상적으로는 소수의 적극적인 주민들만으로 마을만들기나 문화 활동이 전개되다가 행사나 특정 프로그램에 일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7점 척도 기준으로 3.89점(100점 기준 55.6점)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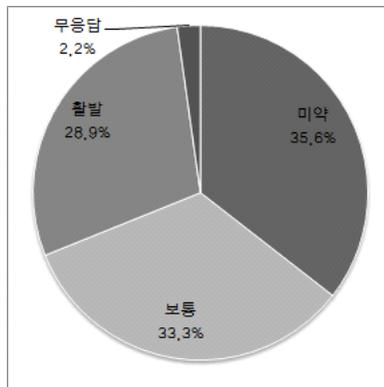
〈표 3-6〉 주민참여정도 평가

(단위 : 명, %, 점)

사례수	참여 미약		← 보통 →			참여 활발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0.0	11.1	24.4	33.3	22.2	6.7	97.8	2.2	3.89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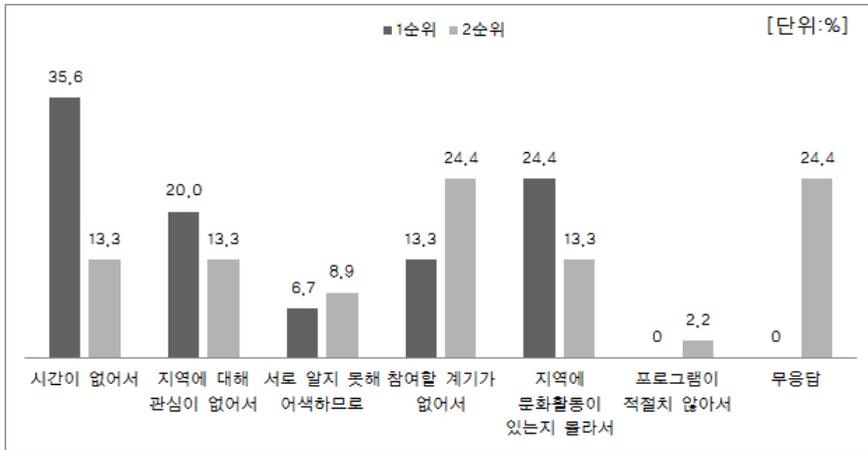


〈그림 3-25〉 주민 참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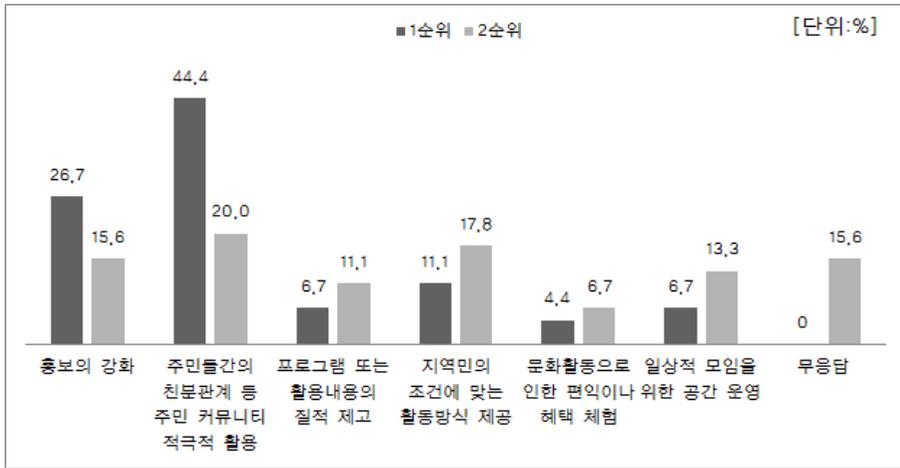
〈그림 3-26〉 주민참여정도 평가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이유에 1순위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35.6%(1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라는 의견이 24.4%(11명)이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20.0%(9명)는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고 보고 있고,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에 대해서는 13.3%(6명),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기 때문에는 6.7%(3명)이 동의하고 있다. 2순위 응답으로는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가 24.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간이 없어서’와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가 공통적으로 13.3%(6명)이 동의했다.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므로’는 8.9%(4명),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아서’는 2.2%(1명)만이 동의하고 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의견에 가장 많은 24.5%가, 다음으로는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와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에 공통적으로 18.9%가 동의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 즉 한국사회의 만연한 문제점인 시간 부족이라는 것이다. 사실 시간 부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활동을 통해 개선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다. 반면에 참여할 계기 부족이나 지역에 문화활동에 대한 인지 부족은 내부적 원인이고 따라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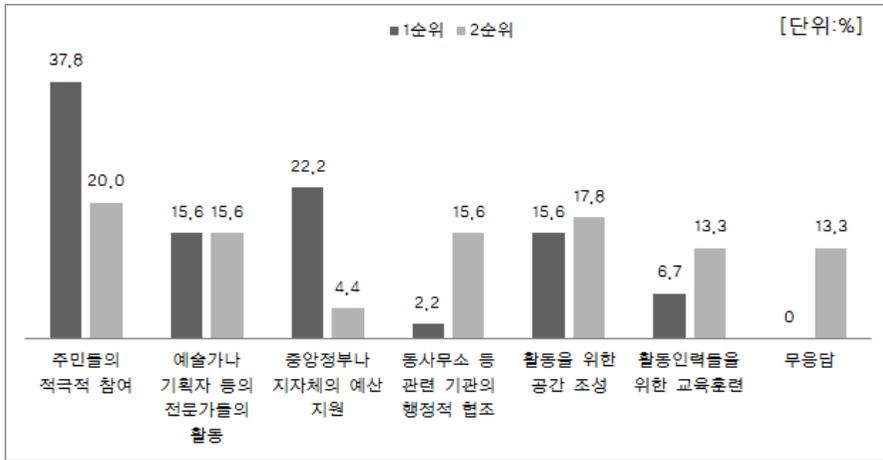
〈그림 3-27〉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친분관계 등 주민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용’을 1순위로 지목하는 의견이 44.4%(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6.7%(12명)가 ‘홍보의 강화’를 꼽고 있다. 그 외에는 ‘지역민의 조건에 맞는 활동방식 제공’이 11.1%(5명), ‘프로그램 또는 활동내용의 질적 제고’와 ‘일상적 모임을 위한 공간 운영’이 각각 6.7%(3명), ‘문화활동으로 인한 편익이나 혜택 체험’이 4.4%(2명)를 차지하고 있다. 2순위 응답에서도 ‘주민들 간의 친분관계 등 주민 커뮤니티 적극적 활용’의견이 20.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민의 조건에 맞는 활동방식 제공’, ‘홍보의 강화’, ‘일상적 모임을 위한 공간 운영’, ‘프로그램 또는 활동내용의 질적 제고’, ‘문화활동으로 인한 편익이나 혜택 체험’의 순이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주민들의 친분관계 등 주민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용’과 ‘홍보의 강화’가 다른 의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참여 증진방안에 대한 견해는 앞의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과 관련을 맺고 있다. 참여할 계기가 없고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민 커뮤니티의 활용과 홍보 강화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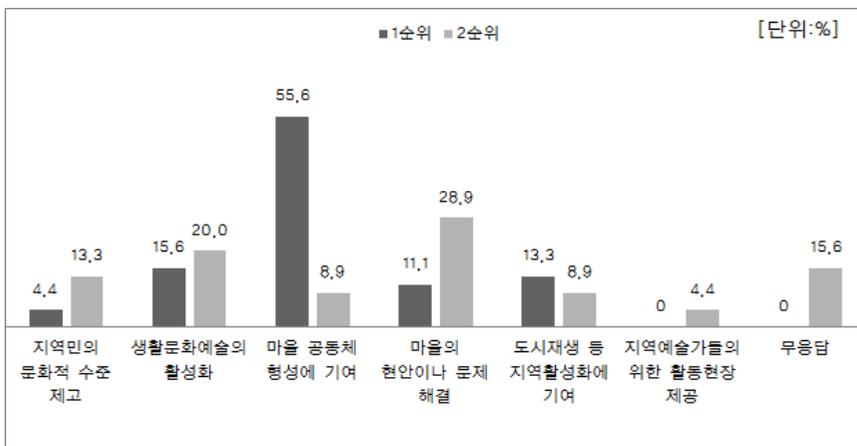
〈그림 3-28〉 주민참여 증진방안

지역 내 문화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37.8%(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22.2%(10명)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가나 기획자 등 전문가들의 활동’과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6%(7명)이고 ‘활동인력을 위한 교육 훈련’이 6.7%(3명),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행정적 협조’가 2.2%(1명)이다. 2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20.0%(9명)이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응답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문화활동의 지속 요인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을에서의 문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림 3-29〉 문화활동 지속에 필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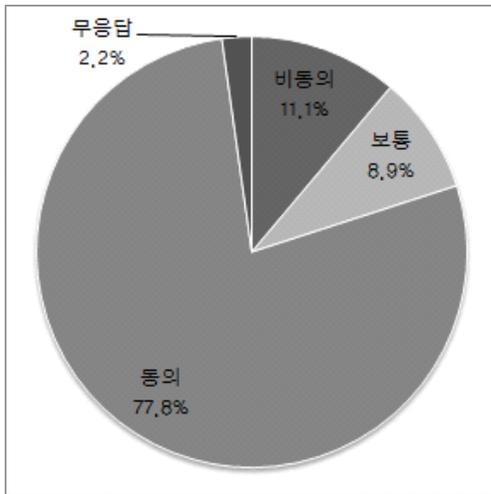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55.6%(25명)으로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이 밖에는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 해결’이 각각 15.6%(7명), 13.3%(6명), 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2순위 응답에서는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 해결’이 28.9%(13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해보면 결국 마을문화활동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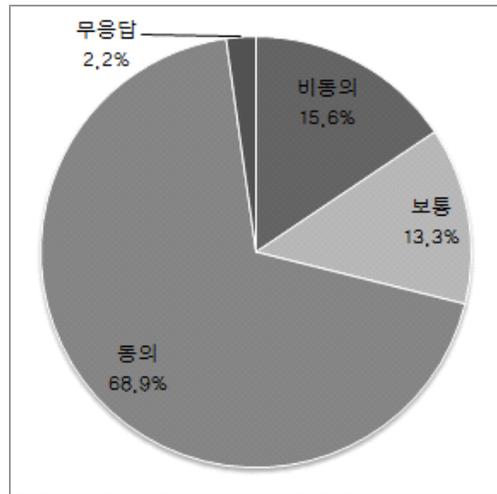
〈그림 3-30〉 문화활동의 목적

4)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평가와 인식

‘내가 하는 일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77.8%인 35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또한 31명인 68.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은 5.57점, 문화예술활동은 4.89점으로 문화예술활동보다는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림 3-31〉 내가 하는 일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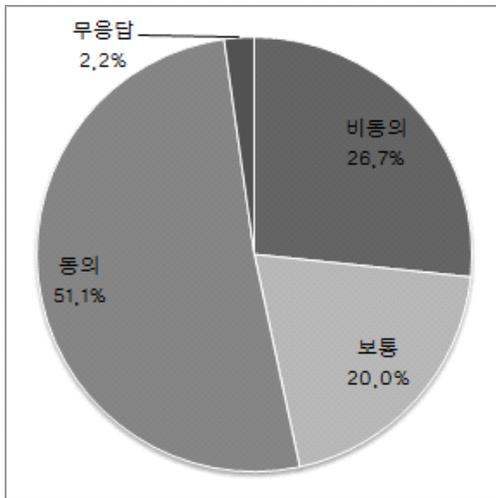
〈그림 3-32〉 내가 하는 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다

〈표 3-7〉 내가 하는 일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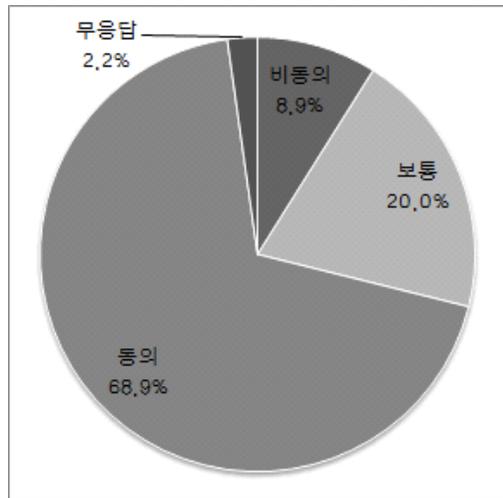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하는 일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다	(45)	4.4	4.4	2.2	8.9	15.6	24.4	37.8	2.2	5.57	79.5
내가 하는 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다	(45)	6.7	4.4	4.4	13.3	31.1	24.4	13.3	2.2	4.89	69.8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예술적 가치보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1.1%(23명)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68.9%인 31명이 동의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는 예술적 차원보다는 마을만들기의 한 방편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3〉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예술적 가치보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림 3-3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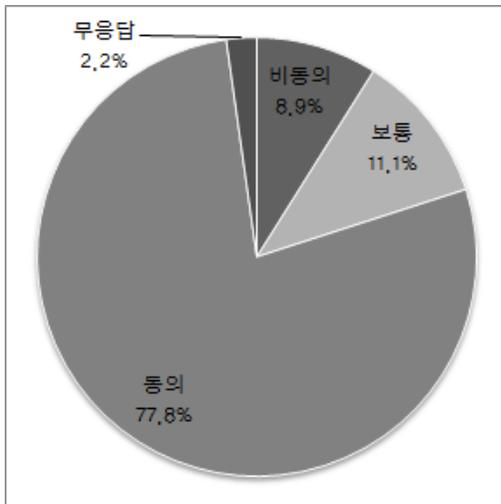
〈표 3-8〉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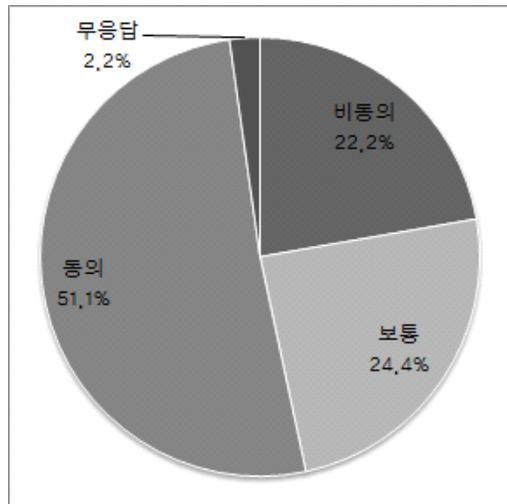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예술적 가치보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45)	2.2	4.4	20.0	20.0	24.4	17.8	8.9	2.2	4.52	64.6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5)	4.4	2.2	2.2	20.0	17.8	26.7	24.4	2.2	5.27	75.3

‘수원시의 현재 상황(도시구조, 인구구조, 사회문제 등)은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77.8%인 35명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만

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질문에도 절반인 23명(51.1%)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민들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준비에 대해서는 보통인 4점에 11명, 약간 동의를 뜻하는 5점에는 15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4.41점으로 중간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현재의 수원시는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원시민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는 않으나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35〉 수원시의 현재 상황은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그림 3-36〉 수원시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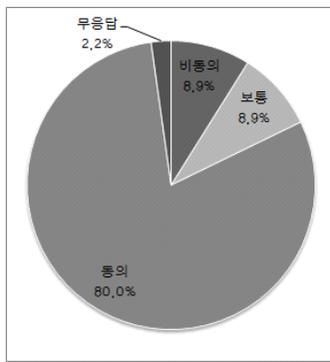
〈표 3-9〉 수원시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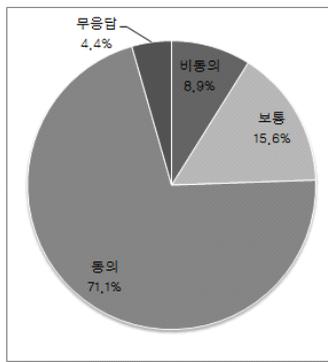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원시의 현재 상황은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45)	6.7	0.0	2.2	11.1	13.3	26.7	37.8	2.2	5.65	80.2
수원시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45)	6.7	0.0	15.6	24.4	33.3	11.1	6.7	2.2	4.41	63.0

‘마을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중앙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에는 80.0%(36명)가, ‘마을문화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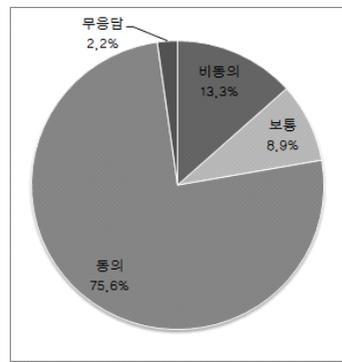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에는 71.1%(32명)가, '마을문화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에는 75.6%(34명)이 동의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5.57점, 전문가들의 참여는 5.48점, 선행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은 5.48점으로 정부의 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마을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림 3-38〉 마을문화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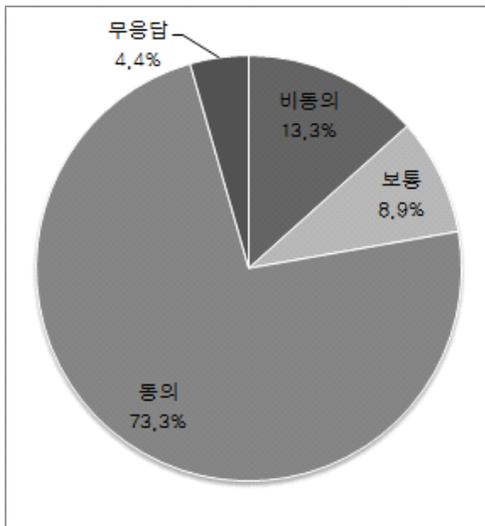
〈그림 3-39〉 마을문화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3-10〉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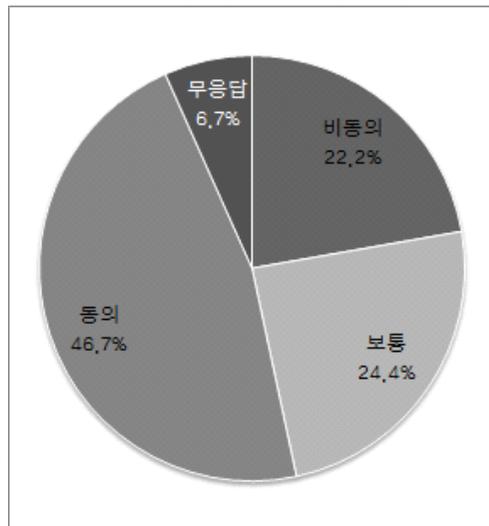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을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45)	2.2	6.7	0.0	8.9	24.4	17.8	37.8	2.2	5.57	79.5
마을문화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	(45)	0.0	6.7	2.2	15.6	20.0	26.7	24.4	4.4	5.37	76.7
마을문화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45)	2.2	6.7	4.4	8.9	17.8	22.2	35.6	2.2	5.48	78.2

수원시의 관련 사업들이 마을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에는 73.4%(33명)가 동의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의 예술관련 지원사업이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에는 46.7%(21명)만이 동의를 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의 마을문화활동에 활성화에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마을문화활동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0〉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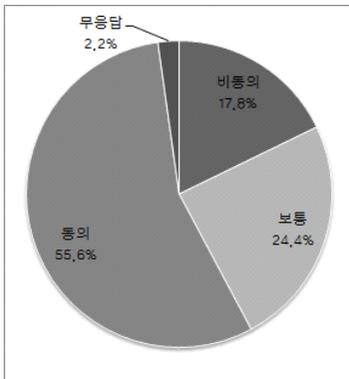
〈그림 3-41〉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의 예술관련 지원사업이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11〉 수원시 지원사업의 기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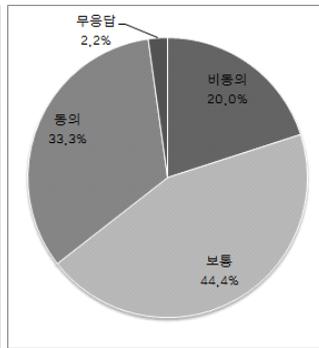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5)	0.0	4.4	8.9	8.9	17.8	17.8	37.8	4.4	5.56	79.4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의 예술관련 지원사업이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5)	2.2	2.2	17.8	24.4	15.6	20.0	11.1	6.7	4.64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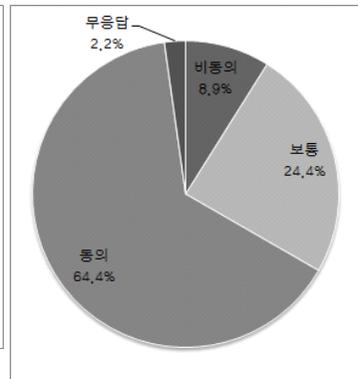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여한 문화활동에 만족해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55.6%(25명)가 만족해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보통(4점)이라는 응답 또한 24.4%로 26.7%인 약간 만족(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화활동과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불과 33.4%(15명)만이 만족해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는 질문에 64.5%(29명)이 동의하고 있다.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크든 작든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2〉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여한 문화활동에 만족해하고 있다



〈그림 3-43〉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화활동과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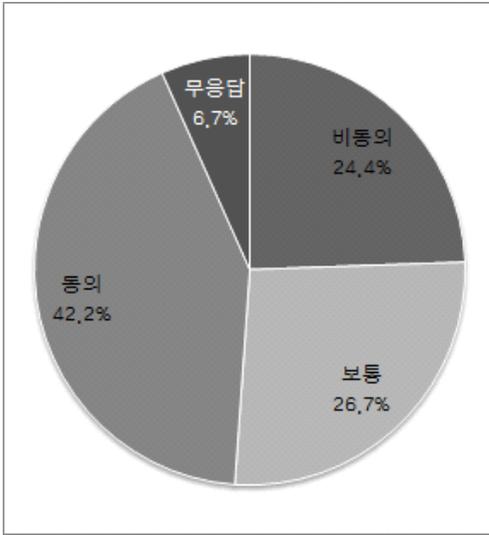
〈그림 3-44〉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표 3-12〉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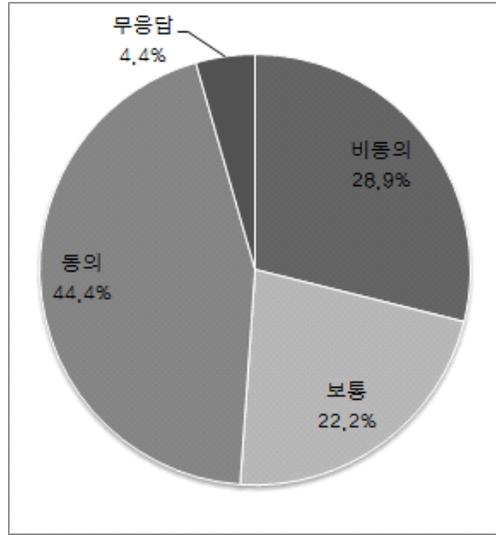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여한 문화활동에 만족해 하고 있다	(45)	.0	4.4	13.3	24.4	26.7	15.6	13.3	2.2	4.77	68.2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화활동과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해 하고 있다	(45)	.0	2.2	17.8	44.4	17.8	6.7	8.9	2.2	4.36	62.3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45)	.0	4.4	4.4	24.4	20.0	26.7	17.8	2.2	5.16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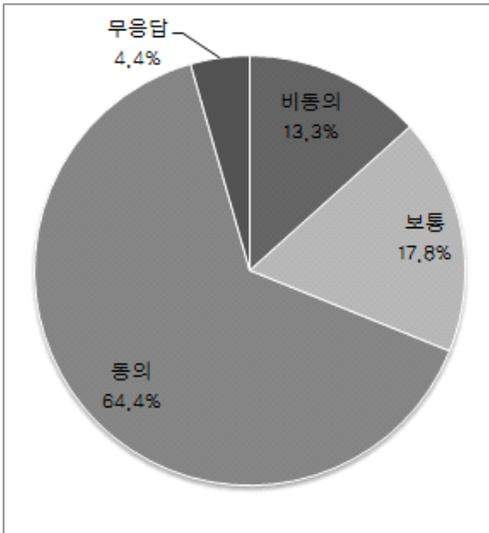
응답자들의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문화 활동 참여 정도에 만족한다’에 42.2%(19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마을 만들거나 마을문화활동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한다’ 또한 44.5%(20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만족한다’에는 64.4%(29명)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에는 71.1%(32명)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는 만족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 즉 시의 지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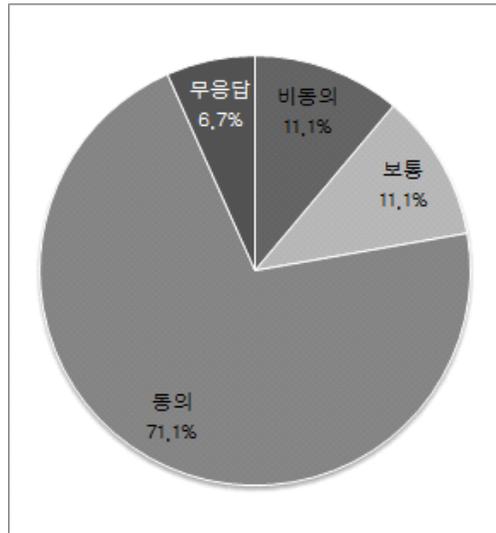
〈그림 3-45〉 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만족한다



〈그림 3-46〉 나는 마을만들기나 마을문화활동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한다



〈그림 3-47〉 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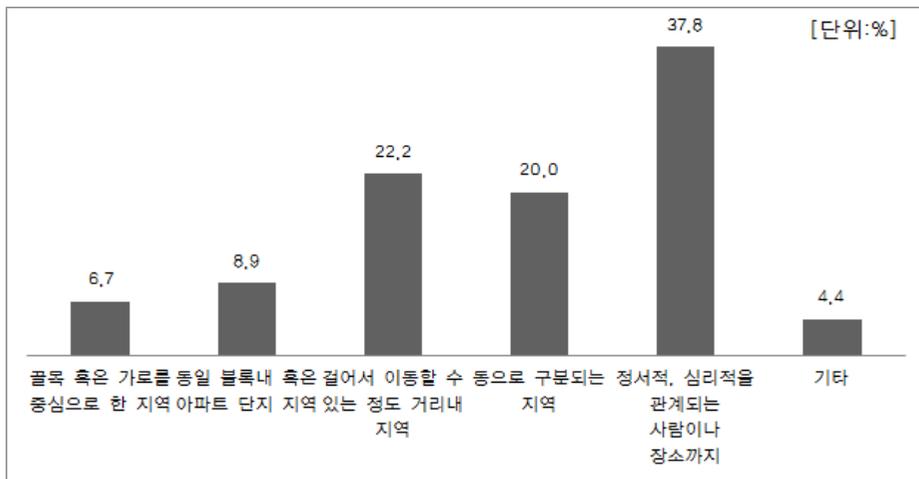
〈그림 3-48〉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표 3-13〉 만족도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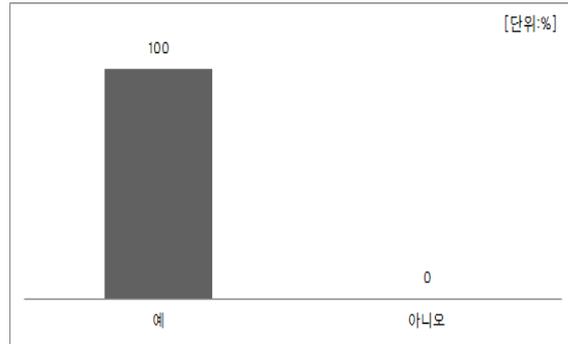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7점)	평균 (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만족한다	(45)	2.2	11.1	11.1	26.7	13.3	20.0	8.9	6.7	4.43	63.3
나는 마을만들기나 마을문화활동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한다	(45)	0.0	8.9	20.0	22.2	15.6	22.2	6.7	4.4	4.44	63.5
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만족한다	(45)	0.0	4.4	8.9	17.8	26.7	24.4	13.3	4.4	5.02	71.8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45)	0.0	2.2	8.9	11.1	26.7	22.2	22.2	6.7	5.33	76.2

마을의 범위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나 장소까지’로 37.8%(17명)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거리 내 지역’과 ‘동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각각 22.2%(10명)와 20.0%(9명)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 블록내 혹은 아파트 단지 지역’은 8.9%(4명), ‘골목 혹은 가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6.7%(3명)에 불과하다. 이는 ‘마을’에 대한 인식에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3-49〉 마을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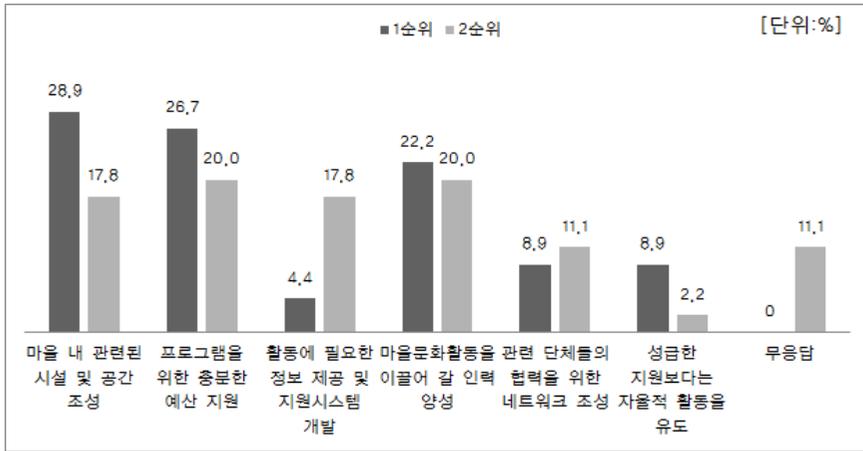
마을문화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 주민간의 소통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즉 문화활동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0〉 마을문화활동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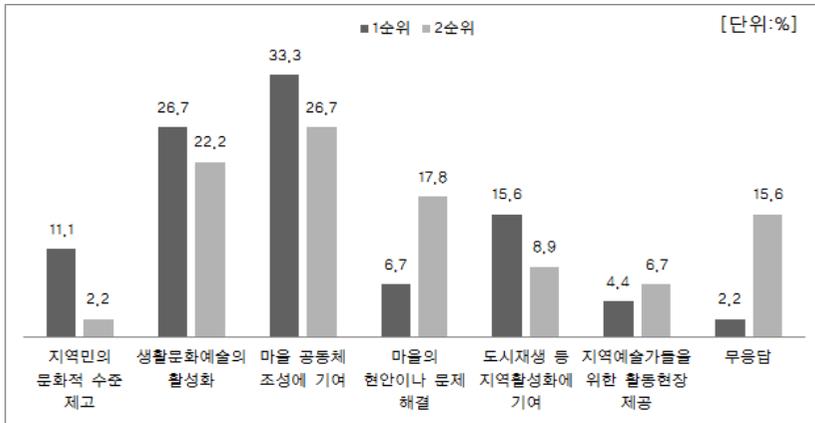
5) 마을문화활동 정책

마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 ‘마을 내 관련된 시설 및 공간 조성’이라는 응답이 28.9%(13명)으로 가장 많으나 그 뒤를 잇는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마을문화활동을 이끌어 갈 인력 양성’이라는 응답 또한 26.7%(12명)과 22.2%(10명)으로 비슷한 정도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이나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원시스템 개발’은 8.9%(4명)와 4.4%(2명)로 응답 비율이 높지 않다. ‘성급한 지원 보다는 자율적 활동 유도’하기를 바라는 응답 또한 8.9%(4명)으로 높지 않다. 2순위 응답으로는 ‘예산 지원’과 ‘인력 양성’이 각각 20.0%(9명), ‘공간 조성’과 ‘정보 제공’이 각각 17.8%(8명)으로 거의 고른 응답 비율을 보이고 ‘네트워크 조성’만 11.1%(5명)으로 약간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자율적 활동 유도’는 2.2%(1명)으로 거의 동의하지 않음을 보인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공간 조성’과 ‘예산 지원’이 23.4%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인력 양성’이 21.1%로 이보다 약간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율적 활동 유도’는 5.6% 밖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의 지원을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시의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공간 조성과 예산 지원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51〉 수원시의 역할

마을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목표는 무엇이여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 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3.3%(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못지않은 비율인 26.7%(12명)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도시재생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 ‘지역민의 문화적 수준 제고’,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 해결’,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활동현장 제공’은 차례대로 15.6%(7명), 11.1%(5명), 6.7%(3명), 4.4%(2명)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2순위 응답 또한 ‘마을 공동체 구성에 기여’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 26.7%(12명)과 22.2%(10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 해결’이 17.8%(8명)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마을 공동체 구성에 기여’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가 30.0%와 24.5%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2〉 정부지원의 목표

우리 지역 혹은 동네, 마을의 주요 이슈나 관심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27명이 응답하였는데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다. 주민 간 갈등이나 소통의 문제, 노후 도로나 시설 같은 환경 문제, 주차나 쓰레기 같은 생활 문제, 교육이나 집값, 분양 등의 일반적인 사회문제 등 관심 사안이나 이슈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화활동이든 공동체 활동이든 마을마다 동네마다의 현재 상황들을 근거로 서로 다르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을문화활동에 관련하여 수원시나 경기도, 중앙정부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13명 밖에 답하지 않았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특히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는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공연장 건설 등에 대한 요구가 소수 있다.

3. 시사점

수원의 마을문화활동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고 발전해왔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지역기반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단체를 설립했지만 설립한 시기를 보면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시작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욕구들이 커가는 시점에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시작은 마을활동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 스스로도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문화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70% 이상이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수원에서의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비록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발성이 발현되면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시의 정책에 의해 즉 관 주도로 전개되

면서 한계와 약점을 안고 있음 또한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소수의 주민들이며 전반적으로 주민 참여가 미약하면서 행사나 특정 프로그램에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들의 무관심이며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할 계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원시의 역할에 대해서 성급한 지원보다는 자율적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마을문화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정부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며 가장 중요한 수원시의 역할 역시 예산 지원과 시설 및 공간 조성을 꼽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즉 수원의 마을문화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성 보다는 관 주도 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사업의 전개와 확대는 동시에 문화활동의 일상화·보편화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마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내용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실천이거나 적어도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활동이다.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2/3 이상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기계적이며 당위론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의견 또한 절반이 넘는다. 이는 문화예술이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조성, 사회통합, 지역정체성 형성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 일뿐 실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화예술의 의미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성찰을 수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마을문화활동의 목적에 대해서도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거나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나 지역민의 문화적 수준 제고 등과 같은 점은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과 분리되거나 혹은 저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

결론

제1절 몇 가지 이슈들

- 결론을 대신하여

제2절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

제4장 결 론

제1절 몇 가지 이슈들 - 결론을 대신하여

수원시에서는 마을르네상스 등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마을문화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현황과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적 지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수원시의 마을문화활동과 그 활동의 주체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수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 실태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 사례와 설문조사를 하면서 나온 몇 가지 논쟁의 지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제도권 안으로 포섭된 마을문화활동

수원시에서 마을르네상스사업을 통해 마을단위에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거나 혹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 중 문화나 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문화예술적 측면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주체들을 발견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활동들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제도에 포섭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선 많은 수의 마을활동 단체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결성되거나 활성화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주체들은 행정 조직과 관계있는 조직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행정 주변의 조직에서 활동해왔기에 쉽게 정보를 얻고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관계없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자발적인 지역민 모임이나 시민단체들도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결합하였다. 이는 시의 사업이 보통 이러한 자생적인 모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기 때문이다. 시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시의 지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생적 주민 활동일지라도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전적으로 무관한 활동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치 블랙홀이 모든 빛들을 빨아들이듯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수원의 모든 지역 활동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시 주도 사업의 맹점을 파악하고 이제는 거리를 두려는 단체들도 발견되고 있다. 시의 지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제약사항은 자신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활동의 성격을 바꾸게도 하며 행정이 선호하는 가시적인 성과에 매몰되게 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만든다. 즉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주체들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자발성과 자립, 지속가능성의 문제

어떤 주체의 활동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 되는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아마도 자발성과 자립일 것이다. 자발성과 자립은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립은 재정적 요인이 결정적이긴 하지만 자발성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마을문화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자발적 동력을 가지고 출발하느냐는 향후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문화활동의 상당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자발성에 기반한 주민활동이 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었다기보다 시의 지원이 주민활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활동을 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여나가자는 것’과 ‘시의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러한 활동을 해보자는 것’은 분명 다른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후자의 상황이 평가 절하될 이유는 없다. 시의 정책사업을 통해 그러한 활동이 촉발되었다는 것 또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발 앞서가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정책에는 주민활동의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수원의 마을르네상스 사업 또한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시의 정책사업에 의해 촉발된 활동들이 일회적인 사업들로 끝나거나 지원이 유지되는 기간에만 유효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시의 지원은 주민들의 활동을 촉발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의 동력으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마을르네상스 지원사업에서 지원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지원금액의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 개별 활동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재정적인 자립의 측면에서 풀어가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배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리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드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처럼, 정책도 사람들에게 마을을 꿈꾸게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예술활동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립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활동의 동기를 갖게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사업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을 안에서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나 공간임대료 같은 제경비가 더욱 필요할지 모른다. 어떤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를 실행하기 위해 단체의 역량을 넘어서 무리하게 활동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동력을 소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소모적인 사업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단체의 운영과 교육, 행정지원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따르지만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특성상 최대한 행정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3. 활동에 대한 보상과 자발성

정책이 주도하는 마을 사업에서 내면적으로 주민의 위치, 주민 참여의 의미나 성격을 ‘자발성’이라는 측면을 살피는 데에 지원예산의 구조나 항목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나 활동을 일종의 봉사라고 보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봉이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사는 어떤 활동에 대해 개인의 열정과 내면의 동기가 충분한 경우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봉사를 ‘자원봉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봉사는 활동의 내용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에게 매우 강력한 동기가 있어 사회적 실천의 하나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생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주민 주체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활동의 성격상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을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많아지면 참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생업 이상의 활동의 강도를 요구받기도 한다. 그런 경우 어떤 이들은 자신이 투여하는 시간과 비용이 봉사를 넘어 거의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도가 되기도 한다.

많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마을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변화에 대한 열망, 실천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주민주체가 되었다기보다 행정에 의해 소위 섭외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을 사업에서 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매우 중요하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경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양산된 마을활동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동장과 담당 공무원 등 행정의 주도성이 강하다. 초기에 행정이 주도했던 사업은 협의회장 등 기존 행정체계 주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많다 보니 자발적 의지보다는 의무나 친소관계에 의해 움직인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예산은 프로그램이나 공간조성 등의 영역을 위해 사용되고 주민들의 활동을 참여나 봉사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건비 등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이든 활동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그 활동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보상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고 만족감이나 보람 등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한다. 문제는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동기와 같은 내면적 동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활동에서 만족감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보상도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활동일수록 보상의 딜레마가 커지게 된다.

예산의 자부담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방침들이 원칙적으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의도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개인에게 봉사활동의 최대 성과는 스스로 만족함이다. 그러나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그 예산에 맞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활동의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 개인의 만족감만이 사업의 성과가 될 수 없다. 누군가는 봉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직업적 활동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정책이 봉사라는 의미를 앞세워 개인의 시간과 열정을 저렴하게 취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도 점검해봐야 한다. 주민 주체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의미와 현실, 원칙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 경제적 피로감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예술적 차원의 이슈

현장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두 가지 예술적 이슈를 도출하였다. 하나는 마을사업이 낮은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을 도구한 한다는 점이다.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예술이 마을만들기 활동의 도구와 수단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공동체 성원들의 예술활동이 전문가의 예술활동처럼 높은 예술적 성취를 최상위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 낮은 수준의 예술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을문화활동에서도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를 만들고 소통하는 행위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과정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현대의 예술실천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계맺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기에 예술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마을활동에서 예술활동의 수준과 예술의 도구화를 거론하는 것은 문화를 장르적 예술로 등치시켜 근대적 의미의 작품인 것으로 사고하는 것 즉 예술에 대해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예술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마을활동에서 불필요한 요소로 여겨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마을 사업의 핵심은 우리 동네라는 특정한 지역적 범주를 지니면서 현재 한 개인이나 크고 작은 사회, 그룹들이 사는 동시대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읽어내면서 좋은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이 이 질문의 모든 면들을 다 포용하고 구현할 수는 없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예술과 예술 활동이 그런 점에서 성숙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은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술에서의 문제의식들은 단지 예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예술이라 함은 예술의 장르나 형식으로 예술이나 예술 활동을 한정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 사업의 활동가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예술의 의미, 예술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활동들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을문화에 대한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마을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놓치는 셈이다. 이미 현상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미학을 다루는 마을 사업들이 공동체 예술을 고민하는 예술현장이나 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예술’이 마을 사업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마을에서의 진지한 예술실천은 공동체와 마을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예술의 수준을 고민하고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마을 문제를 미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예술은 때로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제공하기도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한 예술은 마을활동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

제2절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마을문화활동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마을활동의 자립을 위해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지원 햇수를 제한하고 매년 자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하면서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이 사업지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활동주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또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무조건 예산지원을 줄인다고 해서 자발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 적극적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지금의 활동양식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참여자들에게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혹은 그런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든지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마을의 범위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나 장소까지로 간주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행정구역에 의해 마을을 구분하기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에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문화활동의 가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의 어느 응답자의 제안처럼 마을에 인문학적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을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계기들

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은 행사 참여자의 양적인 수치 중심으로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활동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공동체성의 추구하고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응집력 높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공동체 사업의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포용해야 한다. 높은 질의 마을문화활동을 위해서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같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적극적 결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서 문화관련 기관과의 공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가 또는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술가나 문화기획자가 마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나 문화기획자가 마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강윤주(2015),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문화재단.
- 김은희(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나무도시.
- 김종길(2012), '국내 공동체예술의 흐름과 사례', 미술세계 2012년 11월호: 84~88.
- 남원석 외(201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다무라 아키라(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소화.
- 라도삼(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_____(2012), 마을문화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SDI 정책리포트 제126호, 서울연구원.
- 민소영(2013), 문화예술은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경험-광주시 시화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32~73.
- 박미연(2013), '실천'으로서의 예술: 민중미술 이후 한국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의 '상황'-'재현'에서 '실천'으로 진화하는 예술개념에 관한 소고, 예술경영 연구 27: 75~99.
- 박신의(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1): 56~75.
- 백선혜(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손은하(2011), 공공미술로서의 지역 만들기와 예술촌의 역할, 동북아 문화연구 29: 257~277.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2015), 이웃과 함께한 마을이야기.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 양혜원·김혜인(2012),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창호(2012), 마을공동체 만들기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436호, 국회입법조사처.
- 전병태(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Cohen-Cruz, Jan(2008), 지역 예술 운동, 권영진 역, 미메시스.

〈영문 자료〉

- Chapple, Karen & Shannon Jackson(2010), Commentary: Arts neighborhoods, and Social Practices: Towards an Intergrated Epistemology of Community Ar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9(4): 478~490.

- Guetzkow, J.(2002),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Taking the Measure of Cultural Conference, June 7~8, 2002,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 Hillery, George A.(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Hoynes, William(2003), The Arts, Social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7): 773~788.
- Jeannotte, M. Sharon(2003), Singing Alone?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Capital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35~49.
- Madyaningrum, Monica E. & Christopher Sonn(2011), Exploring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Art Project: A Case Study on the Seeming Project,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358~370.
- Stern, Mark J. & Susan C. Seifert(2002), Culture Builds Community Evaluation Summary Report,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부 록

1. 설문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ID		
-------------	------------------------	----	--	--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지역을 근거로 한 문화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 분석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문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참여하시어 보다 발전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책임자 : 최지연 연구위원

연구원 : 임재춘·한문희 위촉연구원

연락처 : 031-220-8055/choi.jiyoun@suwon.re.kr

문1. 지역내 문화활동(합창, 신문, 벽화 등)을 실천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습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우리 단체의 성격 또는 정체성(예. 극단) | ② 활동인력의 특성(예. 음악가) |
| ③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적절한가의 여부 | ④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의 일환 |
| ⑤ 다른 지역이나 단체에서 성공한 사례 참조 | ⑥ 주민들의 참여가능 정도(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문2. 위와 같은 지역내 문화활동을 수행할 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주민들의 무관심 | ② 자원 부족 |
| ③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 또는 행정 규제 | ④ 단체나 활동을 주도할 인력 부족 |
| ⑤ 관련 정보나 지식, 활동 경험의 부족 | ⑥ 지역내 갈등이나 의견 충돌 |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문3. 지역주민들의 마을만들기 또는 지역과 관련된 문화활동 참여 양상은 어떠합니까?

- | | |
|--------------------------|---------------------------|
| ① 많은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 ② 매우 적극적인 소수의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 |
| ③ 행사나 특정프로그램에만 다수의 주민 참여 | ④ 전반적인 주민 참여 미약 |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문3-1. 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1~7점)

참여 미약	←————— 보통 —————→					참여 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②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 ③ 서로 알지 못해 어색하므로 | ④ 참여할 계기가 없어서 |
| ⑤ 지역에 문화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 ⑥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아서 |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문15. 마을문화활동과 관련한 만족 정도에 대해 1~7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문화활동 참여 정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마을만들기나 마을문화활동 관련한 수원시의 지원 혹은 정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6. 통계분석을 위해 필요한 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설립연도		2) 주요 활동기간		3) 활동 지역		동
4) 단체 성격	① 문화(예술)단체 ② 친목단체 ③ 봉사단체 ④ 행정단체 ⑤ 기타()					
5) 설립 계기	① 전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② 법, 조례 등으로 결성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③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④ 국가·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⑤ 지역기반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⑥ 뜻맞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모이게 되어서 ⑦ 기타 ()					

문17.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할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단체 내 직위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연령		4) 단체 내 활동기간	
5) 활동 동기	① 지역(마을)에 대한 관심 ②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③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 ④ 우연한 기회에 ⑤ 기타 ()		

※ 긴 시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ities for Community Culture in Suwon

In Suwon, as various policies and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to build or restore communities, various cultural activities for community are taking pla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tatus and reality of these activities and discuss what policy orientation should be tak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ultural activities in Suwon. I tried to understand through cases studies and surveys how local actors are performing cultural activities based on the community.

I discussed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through conceptual and historical approaches to town development and art in town development. Town development is community building as well as improvement of physical housing environment. Art contributes most effectively to forming community relations and identity. Therefore, many cases of town development projects are attempting to combine arts.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y is the combination of 'village' and 'culture'. The core of the community cultural activity is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mmunity culture.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leaders and activists who actively engaged in community activities and manager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surveyed community cultural activity groups. The interview and survey asked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the overall status of the project, and views on the related policy. The Maeul Renaissance projects in Suwon proved to b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inding of participants the of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and to the generalization and activation of cultural activitie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appears that there is a limit to making the spontaneity of residents manifest. As cultural activities become more common, there are various forms of activities such as wall painting, performances, village newspaper production, and hobby courses. However, their level is not high.

While the arts remain in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community formation or activities, it appears that art is perceived and utilized only as a tool rather than combined with community activities. Thus, although there are many artists and cultural planners living and working in Suwon, only a few are actively involved in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n summary, through the Maeul Renaissance project in Suwon, community culture activities have been activated in various forms of activity in Suwon and their actors have been unearthed, but they still have the limit of lack of participation of generic people and weak spontaneity. The overall quality level of community cultural activities is not high, and art is utilized as a tool rather than realized the essential value.

Keyword : community cultural activity, community art, community forming, spontaneity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16, 지역사회학회지)

「수원시 생활공간 경계분석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정조대황 수원 화성 행차 재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의 문화적 공간해석을 위한 기초연구」 (2014, 수원시정연구원)